

제 9 장

양념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

박영구*·윤성주**·노수정***·김다정****·김치운*****

1. 양파

- 1.1. 수급 동향
- 1.2. 2025년 상반기 전망
- 1.3. 중장기 전망

2. 마늘

- 2.1. 수급 동향
- 2.2. 2025년 상반기 전망
- 2.3. 중장기 전망

3. 건고추

- 3.1. 수급 동향
- 3.2. 2025년 상반기 전망
- 3.3. 중장기 전망

4. 대파

- 4.1. 수급 동향
- 4.2. 2025년 상반기 전망
- 4.3. 중장기 전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위원, ygpark@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ysj0811@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nosu303@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swetmug@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kcu5226@krei.re.kr

요약

1) 2024년 수급 동향

- 2024년 양념채소 재배면적은 2023년 정식 및 수확기 가격 영향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하였다. 양파와 대파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각각 5%, 22% 증가하였으나, 마늘, 건고추는 각각 4%, 3% 감소하였다. 생산량은 양파, 건고추, 대파가 각각 3%, 2%, 17% 증가하였으나, 마늘은 면적 감소와 작황 부진으로 전년 대비 9% 감소하였다.
- 2024년 마늘 도매가격은 생산량과 저장량이 줄면서 전년보다 5% 상승하였고, 양파와 건고추 도매가격은 생산량 증가의 영향으로 각각 2%, 4% 하락하였다. 건고추의 경우 재배면적이 전년과 차이가 없었음에도 후기 기상여건 호조로 수확 시기가 연장되어 단위당 수확량이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한편 대파가격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2) 2025년 및 중장기 수급 전망

- 2025년 양념채소류 재배면적은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감소 비율은 대파(9.6%), 마늘(3.9%), 양파(3.5%), 건고추(2.9%)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비 상승과 노동력 부족, 대체작물로의 전환 등이 감소 요인이다. 다만 마늘의 경우 대서중, 양파는 조생종에 한해서 전년 면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12월 말 기준, 2024년산 마늘 재고량은 전년보다 적은 반면 양파 재고량은 소폭 많은 수준이다. 따라서 2025년 상반기 마늘 가격은 전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고량이 많은 양파는 상반기 가격이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저장양파의 부패율, 햇양파의 작황 여부에 따라 가격은 변동될 수 있다.
- 2025~2034년까지의 중장기적인 양념채소류 생산은 양파를 제외하면 대부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수입량은 대파를 제외하면 장기적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량과 순수입량을 고려한 자급률은 양파 90%, 대파 88%, 마늘 84%, 건고추 41%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전망은 장기적인 인구 감소에 따른 1인당 소비량 감소와 향후 원/달러 환율 및 국제 유가, 그리고 실질 GDP, 소비자물가, GDP 디플레이터 등의 거시경제지표 전망치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1.1. 수급 동향

1.1.1. 생산 동향

- 2024년산 양파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로 전년(2023년산) 대비 3.0% 증가한 125만 2천 톤이었다.
 - 최근 10년간 양파 생산량은 연평균(2015~2024년산) 1.5% 증가하였다. 조생종 생산량은 연평균 5.0% 증가하였으며, 전체 양파 생산량에서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만생종 생산량도 연평균 1.0% 증가하였다.
- 2024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2023년산 수확기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4.7% 증가한 1만 8,829ha이었다.
 - 최근 10년간 재배면적은 연평균(2015~2024년산) 0.5% 증가하였다. 조생종 재배면적은 연평균 4.4% 증가하였으나, 중만생종 재배면적이 연평균 0.1% 감소하였다.
- 2024년산 양파 단위당 수확량은 전년(2023년산) 대비 1.6% 감소한 6,651kg/10a이었다.
 - 2월 하순 잦은 강우 및 3월 초 저온으로 습해 및 저온피해 발생, 5월 고온으로 잎마름병 발생, 일조량 부족으로 구 비대 부진 등으로 단수가 감소하였다.
 - 양파 단수는 2019~2021년산의 경우 7,400kg/10a 수준이었으나, 잦은 기상 이변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최근 3개년 평균(2022~2024년산)은 6,670kg/10a 내외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표 9-1 양파 생산 동향(연산기준: 4월~익년 3월)

단위: ha, kg/10a, 톤, %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4년산		18,829	6,651	1,252,275
2023년산		17,986	6,759	1,215,674
평년		18,207	7,208	1,312,433
증감률	전년	4.7	-1.6	3.0
	평년	3.4	-7.7	-4.6

주 1) 2020~2024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조사 결과이며, 2019년산은 통계청 조사 결과
 2) 평년은 2019~2023년산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기준 평균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 2024년산 품종별 생산량은 조생종양파가 19만 7천 톤으로 전년(2023년산) 대비 6.8% 감소하였으나, 중만생종양파는 105만 6천 톤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하였다.
 - 조생종 재배면적은 2,971ha로 전년 대비 0.5% 증가하였으나, 단수는 3월 초 저온피해와 일조량 부족 등으로 구 비대가 부진하여 전년 대비 7.2% 감소한 6,621kg/10a이었다.
 - 중만생종 재배면적은 1만 5,858ha로 전년 대비 5.5% 증가하였고, 단수는 전년과 비슷한 6,656kg/10a이었다.

표 9-2 양파 품종별 생산 동향(연산기준: 4월~익년 3월)

단위: ha, kg/10a, 톤, %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조생종	2024년산	2,971	6,621	196,717	
	2023년산	2,956	7,137	210,986	
	평년	2,917	7,356	214,550	
	증감률	전년	0.5	-7.2	-6.8
		평년	1.9	-10.0	-8.3
중만생종	2024년산	15,858	6,656	1,055,558	
	2023년산	15,030	6,685	1,004,688	
	평년	15,290	7,180	1,097,884	
	증감률	전년	5.5	-0.4	5.1
		평년	3.7	-7.3	-3.9

주 1) 2020~2024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조사 결과이며, 2019년산은 통계청 조사 결과
 2) 평년은 2019~2023년산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기준 평균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1.1.2. 수출입 동향

- 2024년산(4~12월) 양파 수출량은 246톤으로 전년(2023년산) 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평년 동기보다는 크게 감소하였다. 수출 형태는 보통 신선양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2024년산의 경우 건조양파 수출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 이는 10월 태국으로 건조양파 수출량이 일시적으로 큰 폭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양파 수출량은 국내 가격 등락에 따라 증감폭이 큰 편이다. 전체 공급량에서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0.5%(평년 기준) 수준에 불과하다.

표 9-31 양파 수출 동향(연산기준: 4월~익년 3월)

단위: 톤, %

구분	2024년산	2023년산	평년
총 수출량	246 (100.0)	591 (100.0)	6,808 (100.0)
건조양파	156 (63.2)	10 (1.7)	8 (0.1)
신선양파	56 (22.7)	516 (87.4)	6,791 (99.8)
간양파	24 (9.6)	53 (8.9)	8 (0.1)
냉동양파	11 (4.5)	12 (2.0)	1 (0.0)
초산조제양파	0 (0.0)	0 (0.0)	0 (0.0)

주 1) 건조양파, 간양파, 냉동양파, 초산조제양파는 수율을 적용하여 신선양파로 환산하였으며, 2022년산 7월 이후 신선양파 수출량은 신규분류코드(HS CODE:0703.10.1090) 기준

2) 2024년산은 4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 기준

3) 평년은 2019~2023년산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기준 평균

4) ()는 양파 형태별 수출량 비중

자료: 관세청

- 2024년산(4~12월) 양파 수입량은 10만 6천 톤(신선양파 수율 환산)으로 2023년산(12만 1천 톤) 동기 대비 12.3% 감소하였으나, 평년(6만 7천 톤) 동기 대비 57.4% 증가하였다.
 - 2024년산 기준 수입 형태별 비중은 신선양파가 60.7%, 건조 19.6%, 냉동 12.8%, 간양파 6.9%를 차지하고 있다.
 - 2022년산과 2023년산은 국내산 생산량이 평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정부 수급 안정 대책이 시행되면서 신선양파 TRQ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 9-4 | 양파 수입 동향(연산기준: 4월~익년 3월)

단위: 톤, %

구분	2024년산	2023년산	평년
총 수입량	105,637 (100.0)	145,662 (100.0)	101,653 (100.0)
신선양파	64,113 (60.7)	101,293 (69.5)	57,805 (56.9)
건조양파	20,688 (19.6)	21,039 (14.5)	26,968 (26.5)
냉동양파	13,500 (12.8)	16,817 (11.5)	15,758 (15.5)
간양파	7,330 (6.9)	6,501 (4.5)	1,111 (1.1)
초산조제양파	7 (0.0)	11 (0.0)	12 (0.0)

주 1) 건조양파, 간양파, 냉동양파, 초산조제양파는 수율을 적용하여 신선양파로 환산하였으며, 2022년산 7월 이후 신선양파 수입량은 신규분류코드(HS CODE:0703.10.1090) 기준

2) 2024년산은 4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

3) 평년은 2019~2023년산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기준 평균

4) ()는 양파 형태별 수입량 비중

자료: 관세청

- 2024년산 중국산 양파의 국내 추정 판매(도매)가격(기본관세 135% 적용)은 2023년산(1,375원) 대비 낮은 1,220원/kg 내외로 추정된다.
 - 양파 가격 하락의 요인은 중국 내 시장공급물량 증가 때문이며, 저장출하기(8~11월 평균) 중국산 양파 시장 출하가능가격은 국내산 양파 도매가격보다 낮은 1,100원/kg 내외로 추정되었다.

표 9-5 | 중국산 양파 국내 판매가격 추정(연산기준: 4월~익년 3월)

단위: 원/kg, %

구분	2024년산	2023년산	평년
중국산 국내 판매가격(A)	1,220	1,375	1,178
국내산 도매가격(B)	1,203	1,250	1,063
A/B	101.5	110.0	110.7

주: 수입산 양파 국내 판매가능가격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이며, 2024년산은 4-12월 평균 가격 기준
 자료: 관세청, 서울시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은행, 농업관측센터

1.1.3. 공급 동향

- 2024년산 양파 공급량은 생산량이 늘어 전년(2023년산) 대비 1.6% 증가한 138만 2천 톤으로 추정된다.

- 2024년산 수입량은 할당관세 도입으로 수입이 많았던 전년보다는 10.7% 감소하였으나, 국내 생산량이 전년보다 3.0% 늘어 전체 공급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단경기(2025년 1~3월) 양파 수입량과 수출량, 기말재고 등에 따라 2024년산 공급량은 추후 달라질 수 있다.
- 2024년산 양파 자급률은 생산량 증가와 수입량 감소로 전년(2023년산) 대비 1.3%p 증가한 90.6%로 추정된다.

표 9-6 | 양파 공급 동향(연산기준: 4월~익년 3월)

단위: 천 톤, %

구분	2024년산(p)	2023년산	평년	증감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공급량 (f=a+b+c-d-e)	1,382	1,361	1,407	1.6	-1.7
이월재고량(a)	-	-	4	-	-
생산량(b)	1,252	1,216	1,308	3.0	-4.3
수입량(c)	130	146	102	-10.7	27.5
수출량(d)	0	1	7	-47.7	-95.5
기말 재고(e)	-	-	1	-	-
자급률(b/f)	90.6	89.3	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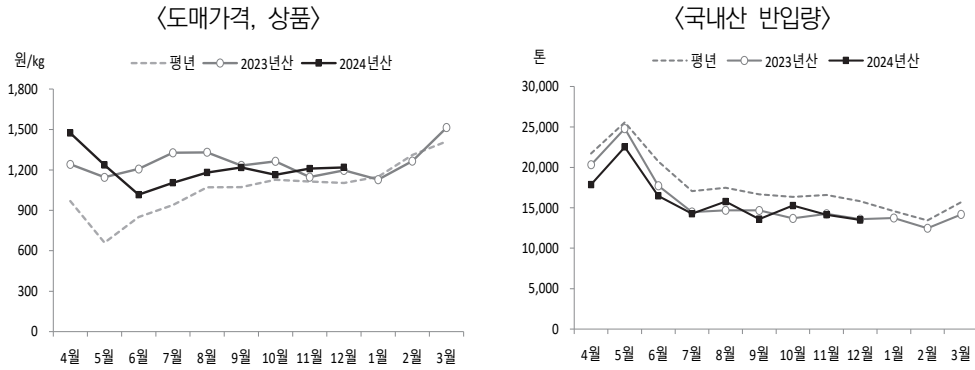
주 1) 공급량은 이월재고·생산·수입량 합에 수출·기말재고량을 제외한 수치
 2) 자급률은 생산량을 공급량으로 나누어 추정하였으며, 이월재고량 및 기말재고량은 정부 비축물량 기준
 3) 수출입량에는 신선양파, 건조양파, 냉동양파, 초산조제양파가 포함되며, 건조, 냉동, 초산조제의 경우 수출을 적용하여 신선양파로 환산
 4) 2024년산 수출입량에서 2025년 1~3월 물량은 평년 수준으로 가정
 5) 평년은 2019~2023년산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기준 평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1.1.4. 가격 동향

- 2024년산 양파 가격(4~12월 평균)은 생산량 증가로 2023년산(1,233원)보다 2.4% 하락하였으나, 평년(990원)보다 21.5% 높은 1,200원/kg(상품)이었다.
- 조생종양파 주 출하기인 4~5월 양파 평균 가격(1,355원/kg)은 2023년산 재고량 감소와 2024년산 조생종양파 작황 부진으로 전년(1,194원) 및 평년(815원)보다 각각 13.6%, 66.3% 높게 형성되었다.

- 반면 6월 이후 평균가격은 증만생종양파 생산량이 늘면서 전년 동기(1,244원) 대비 6.8% 하락한 1,160원/kg이었다. 그러나 평년(1,040원)보다는 11.5% 높은 수준이었다.

그림 9-1 | 양파 월별 도매가격과 반입량 동향



주: 평년은 2019년 4월~2024년 3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기준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표 9-7 | 국내산 양파 월별 도매가격 동향(연산기준: 4월~익년 3월)

단위: 원/kg(상품), %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2024년산	1,475	1,236	1,016	1,105	1,181	1,219	1,164	1,210	1,219			
2023년산	1,242	1,146	1,207	1,328	1,331	1,234	1,264	1,147	1,197	1,128	1,266	1,515
평년	969	661	850	940	1,071	1,073	1,127	1,115	1,102	1,150	1,310	1,413
동락률	전년	18.7	7.9	-15.8	-16.8	-11.3	-1.2	-7.9	5.5	1.9		
	평년	52.1	87.2	19.6	17.6	10.2	13.6	3.3	8.6	10.6		

주: 평년 가격은 2019년 4월~2024년 3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기준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1.1.5. 소비 동향

- 2024년산 국내 1인당 양파 소비량은 2023년산(26.3kg)보다 1.5% 증가하였으나, 평년(27.2kg)보다는 1.7% 감소한 26.7kg으로 추정된다.
 - 국내 1인당 양파 소비량은 2000년 19.0kg에서 2014년 31.3kg으로 연평균 3.6%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26kg 내외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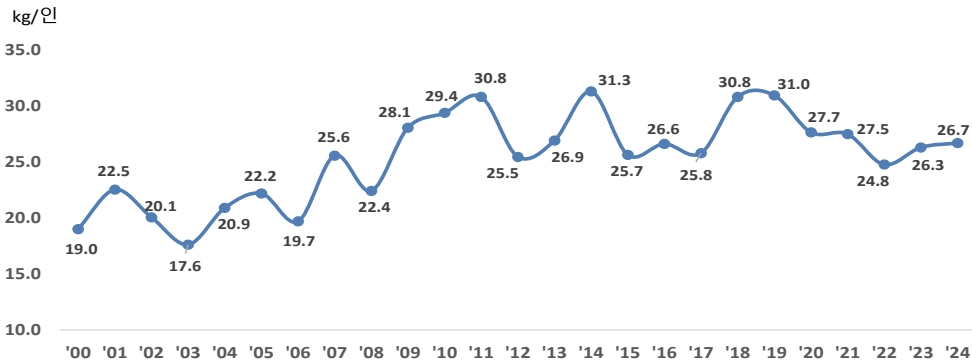
표 9-8 | 양파 1인당 소비 동향(연산기준: 4월~익년 3월)

단위: kg, %

구분	2024년산(p)	2023년산	평년	증감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소비량	26.7	26.3	27.2	1.5	-1.7

주 1) 1인당 소비량=(이월재고량+생산량+수입량-수출량-기말재고량)/추계인구수
 2) 2024년산 수출량, 수입량은 2024년 4월~12월 실적치에 2025년 1~3월은 평년 수준 가정
 3) 평년 소비량은 2019~2023년산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기준 평균
 자료: 통계청(추계인구),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그림 9-2 | 양파 1인당 소비량 추이(연산기준: 4월~익년 3월)



자료: 통계청(추계인구),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 소매유통채널 판매자료(Point-of-Sale Data, POS 데이터)¹⁾를 활용하여 가구 소비자의 양파 소비 동향을 살펴본 결과, 2024년 1~11월까지 양파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9.9% 감소하였다.
 - 유통채널별로는 조합마트, 개인슈퍼와 대형마트 온라인 판매량은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대형마트 오프라인과 체인슈퍼 등의 판매량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량경제연구본부 식품원예경제연구실에서는 '2024년 농식품 소비정보 분석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주요 소매 유통업체의 판매 데이터 수집 및 소규모 업체 대상 표본조사를 통해 POS(Point-of-Sales)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주)마켓링크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판매액과 판매량 등의 POS 데이터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유통채널로 구분되며, 오프라인 채널은 전국 광역시·도의 대형마트, 기업형슈퍼, 편의점, 개인슈퍼의 판매 데이터를, 온라인 채널은 대형마트의 판매 데이터를 포함함.

표 9-9 | 2024년 소매업체별 양파 판매량 전·평년 대비 증감률(1~11월 합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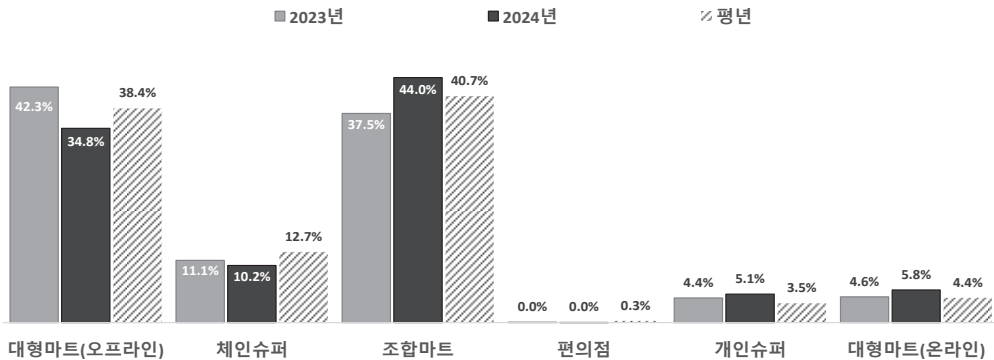
구분	전체						
	대형마트 (오프라인)	대형마트 (온라인)	기업형 슈퍼		편의점	개인슈퍼	
			체인슈퍼	조합마트			
전년 동기 대비	-9.9	-19.2	24.3	-9.9	14.9	-16.6	13.3
평년 동기 대비	-20.5	-22.6	12.0	-31.1	-7.7	-89.0	25.5

주 1) 대형마트는 1000평 이상의 매장면적을 가지며 상시 저가 판매 방식 운영 점포, 기업형슈퍼는 대형 유통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점포로 체인슈퍼(체인, 법인, 공공기관 등 단체에서 가맹점 및 직접 운영하는 점포) 및 조합마트(농수축협에서 직접 운영하는 점포(하나로클럽 제외)), 편의점은 24시간 오픈하며 체인 혹은 가맹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 개인슈퍼는 개인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점포(식자재마트 제외)
 2) 평년은 2019~2023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량경제연구본부 식품유통경제연구실

- 2024년 기준 소매업체별 양파 판매량 비중(소비자 주 구입처)을 살펴본 결과, 조합마트가 4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형마트 오프라인(34.8%), 체인슈퍼(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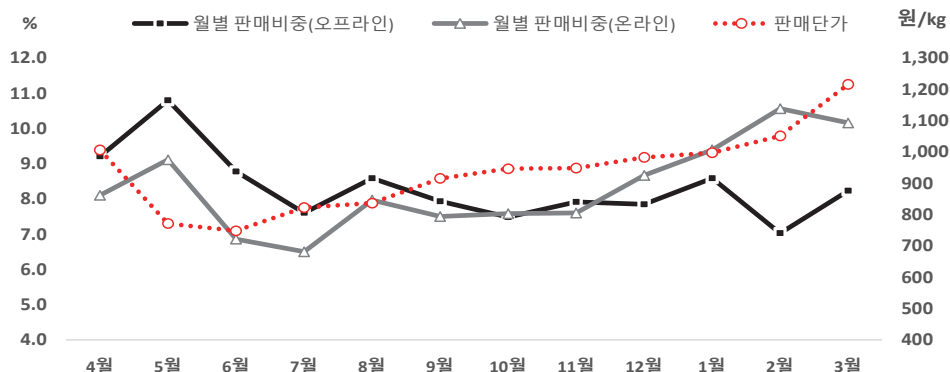
그림 9-3 | 소매업체별 양파 판매 비중(소비자 주 구입처) 변화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량경제연구본부 식품유통경제연구실

- 월별 양파 판매량(평년 기준)은 오프라인의 경우 4~6월에 판매량이 많았으며, 온라인의 경우 1~3월 판매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판매단가는 5~6월이 가장 낮고, 1~3월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햇양파가 출하되면서 가격이 저렴해지는 4~6월의 경우 오프라인 구매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높은 단경기에는 온라인 구매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그림 9-4 | 양파 판매단가와 월별 판매비중 변화



주 1) 월별 판매비중(온라인, 오프라인)과 판매단가는 평년 기준

2) 평년은 2019~2023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량경제연구본부 식품원예경제연구실

1.1.6. 중국 산지 동향

- KREI 농업관측센터 중국 해외 모니터 조사 결과, 2024년산 중국 양파 생산량은 재배면적 및 단수 증가로 전년(2023년산)보다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 중국 양파 재배면적은 2023년산 산지 가격 강세, 해외 시장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 생육 초기 저온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이후 생육 회복되며 전반적인 작황이 양호하여 단수도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 2024년산 중국 양파 산지 가격은 시장공급물량이 증가하면서 전년(2023년산)보다 낮게 형성되었으며,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으로 수출량도 증가하였다.
- 2025년산 중국 양파 재배면적은 전년 산지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해외 시장 수요 증가 등으로 2024년산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2. 2025년 상반기 전망

1.2.1. 2024년산 양파 재고량 추정

- 2024년산 양파 입고량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2023년산) 대비 3.3% 많으나, 평년 대비 2.6% 적은 65만 5천 톤 수준이었다.
- KREI 농업관측센터 표본 저장업체 조사 결과(2024. 12. 20.), 2024년산 저장양파 누적(8~12월) 출고량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36만 4천 톤 내외로 추정된다.
- 12월 말 기준, 부패율을 고려한 2024년산 양파 재고량은 전년보다 2.3% 많은 24만 7천 톤 내외로 추정된다.
- 2025년 1~3월 양파 가격은 2024년산 저장양파 재고량이 많아 전년 동기(1,303원/kg) 대비 하락한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장양파의 부패율, 시장 상황에 따른 출고량 조정 등에 따라 가격 전망은 달라질 수 있다.

표 9-10 | 2024년산 양파 재고량 추정(2024년 12월 말 기준)

단위: 톤, %

구분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	
2024년산	655,426	363,530	246,911	
2023년산	634,760	352,781	241,433	
평년	672,937	386,171	245,312	
증감률	전년 대비	3.3	3.0	2.3
	평년 대비	-2.6	-5.9	0.7

주: 재고량은 (입고량-출고량)에 감모율(2024년산 15.4%, 2023년산 14.4%, 평년 14.5%)을 적용한 국내산 기준
 자료: 농업관측센터, 2024년 12월 20일 표본 저장업체 조사치

1.2.2. 2025년산 양파 재배면적 전망

- 2025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2024년산 수확기(4~7월) 가격이 전년 대비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었고, 대체재 가격 상승으로 전년(2024년산) 대비 3.5% 감소한 18,166ha로 추정된다.
- 품종별로는 조생종 재배면적이 전년(2024년산) 대비 0.5% 증가하였으나, 재배면적 비중

이 큰 중만생종이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생종양파 주산지인 제주지역은 마늘에서의 작목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2024년산보다 소폭 증가하였고, 경남지역에서도 중만생종에서 조생종으로의 전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조생종양파 최대 주산지인 전남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중만생종양파 재배면적은 대부분 지역에서 2024년산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육묘기 생육 부진으로 재파종한 농가가 많았고, 정식기(10~11월) 잦은 강우 등 기상악화로 정식시기가 전년 대비 5~10일가량 지연되어 적기 정식을 못한 농가가 일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9-11 | 2025년산 양파 재배면적 추정

단위: ha, %

구분		조생종	중만생종	전체
2025년산		2,985	15,181	18,166
2024년산		2,971	15,858	18,829
평년		2,956	15,290	18,246
증감률	전년 대비	0.5	-4.3	-3.5
	평년 대비	1.0	-0.7	-0.4

주 1) 2020~2024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조사 결과, 2025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2) 평년은 2020~2024년산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기준

자료: 농업관측센터 2024년 11월 2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표 9-12 | 2025년산 양파 지역별 재배면적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경기·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청	전체
조생종	6.9	21.0	0.0	-0.6	-19.4	0.4	7.8	0.5
중만생종	-4.3	-5.1	-3.5	-1.9	-12.9	18.0	-13.8	-4.3
전체	-4.1	-2.7	-3.4	-1.7	-13.3	2.6	-13.5	-3.5

자료: 농업관측센터, 2024년 11월 2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정식 이후 12월 말까지의 2025년산 양파 생육상황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육묘기 생육이 부진하였으나, 정식 이후 전반적인 초기 생육상황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다만, 11월 초 제주에 내린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잦은 강우로 인해 저지대 포전 위주로 습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철저한 작황 관리가 요구된다.

1.2.3. 2025년산 양파 생산량 전망

- 최근 수확기 기상변화에 따른 단수 변동성이 커 직전 5개년(2020~2024년산) 품종별 평년 단수를 2025년산 양파 추정 재배면적에 적용하여 생산량을 전망하였다.
- 2025년산 양파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감소하나, 작황 부진했던 전년 대비 단수가 증가하여 2024년산 대비 0.6% 증가한 126만 톤 내외로 전망된다.
 - 품종별로는 조생종이 21만 톤, 중만생종은 104만 9천 톤 내외로 예상된다.
- 상반기 양파 전체 예상 공급량²⁾은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0.8%, 0.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2024년산 저장양파 출고 동향, 정부 비축물량 방출, 수입량, 2025년산 조생종양파 생육상황 등에 따라 추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표 9-13 | 2025년산 양파 생산량 추정

단위: ha, kg/10a, 천 톤, %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5년산	18,166	6,933	1,260
2024년산	18,829	6,651	1,252
평년	18,246	6,993	1,276
증감률	전년 대비	-3.5	4.2
	평년 대비	-0.4	-0.8

주 1) 2020~2024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조사 결과, 2025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2) 평년은 2020~2024년산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기준

자료: 농업관측센터

2) 2024년산 12월 말 기준 재고량, 1~5월 추정 수입량, 2025년산 조생종양파 예상 생산량을 고려하여 추정함.

1.3. 중장기 전망

- 양파 재배면적은 2025년산 18,166ha에서 2034년산 18,953ha 수준으로 연평균 0.5% 증가가 예상되어 중장기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 대체재(마늘 등) 재배면적이 동기간(2025~2034년) 감소함³⁾에 따라 양파 재배면적은 증가세를 유지하겠으나, 생산비 상승 등으로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양파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증가하면서 2025년산 126만 톤에서 2034년산에는 128만 5천 톤 수준이 될 전망이다.
- 향후 10년간(2025~2034년산) 양파 수입량은 국내산 양파 생산량 및 중국 산지가격에 영향을 받겠으나, 12만 7천 톤 내외에서 유지될 것으로 추정된다.
- 양파 총 공급량은 생산량 증가로 2025년산 138만 9천 톤에서 2034년산 141만 2천 톤 수준까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급률은 91%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9-14 | 양파 중장기 수급 전망(연산기준: 4월~익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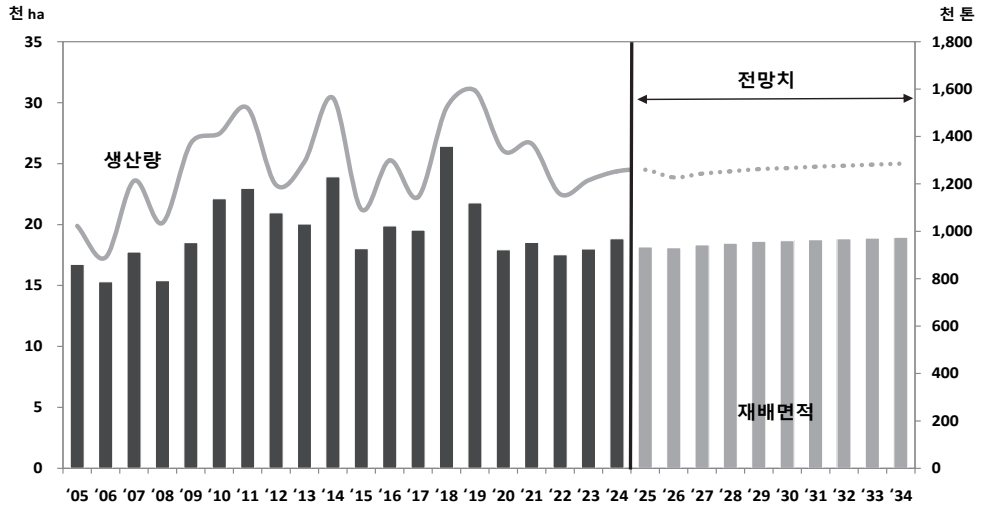
구분	단위	2024	전망		
			2025	2029	2034
재배면적	ha	18,829	18,166	18,623	18,953
총공급량(A=B+C)	천 톤	1,380	1,389	1,388	1,412
국내 생산량(B)	천 톤	1,252	1,260	1,263	1,285
순수입량(C=D-E)	천 톤	127.3	129.0	125.0	126.6
수입량(D)	천 톤	127.6	129.4	125.4	127.0
수출량(E)	천 톤	0.3	0.4	0.4	0.4
자급률(B/A)	%	90.8	90.7	91.0	91.0

주 1) KASMO모형에서 수출입량은 신선, 건조, 냉동, 초산조제 외에 혼합조미료에 사용된 양도 가중계산되어 포함되기 때문에 앞서 언급(수출입동향 및 공급 동향)한 수치와는 상이하며, 이로 인해 계산된 공급량과 자급률에도 차이 발생

2) 2024년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치이며, 2025년 재배면적은 농업관측센터 조사치 기준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통계청

3) 마늘 중장기 수급 전망 내용 참조

그림 9-5 | 양파 생산 동향 및 중장기 전망(연산기준: 4월~익년 3월)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통계청

2.1. 수급 동향

2.1.1. 생산 동향

- 2024년산 마늘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가 줄어 전년(2023년산) 대비 8.9%, 평년 대비 13.0% 감소한 28만 5천 톤이었다.
 -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 영향 등으로 2015년 26만 6천 톤까지 감소하였다. 2019년 38만 8천 톤으로 증가한 이후 전년도 가격과 생육기 기상 상황에 따라 매년 증감을 반복하며 최근에는 30만 톤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 2024년산 재배면적은 2023년산 생산량이 늘고 수확기 가격이 하락하여 전년(2023년산) 대비 4.2% 감소한 2만 3,592ha이었다.
 - 마늘 재배면적은 생산비 부담⁴⁾과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2016년 평균 2만 700ha로 1980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후 생산기반 안정화 정책 확대로 2018년 2만 8천 ha까지 증가하였으나 농촌 노동력 부족과 생산비 증가에 따른 수익성 저하 등으로 다시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 최근에는 전년산 수확기 및 대체재 가격에 따라 2만 4천 ha 내외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 마늘 품종별 재배면적 비중('24년 기준)은 난지형 81.8%, 한지형 18.2%이다. 난지형 중

4) 마늘 생산비(통계청, 「농축산물생산비조사」)는 2005~2014년 기간 동안 연평균 7.8% 증가하였으며, 이는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노동비(연평균 11.4% 증가), 종묘비(3.8% 증가), 비료비(6.6% 증가)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생산비는 최근 10년(2015~2024년) 동안에도 연평균 4.3% 증가, 노동비, 종묘비, 비료비가 연평균 각각 3.5%, 4.9%, 4.3% 증가하였음.

- 대서종 마늘은 52.7%로 전년 대비 0.9%p 증가, 남도종은 0.5%p 감소한 29.1%이었다.
- 한지형(충청, 경북)과 남도종 주산지(제주, 전남)에서 작목이 전환되고 대서종으로의 품종이 교체되면서 대서종은 최근 10년간(2015~2024년산) 연평균 7.3% 증가하였고 한지형과 남도종은 각각 1.1%, 3.3%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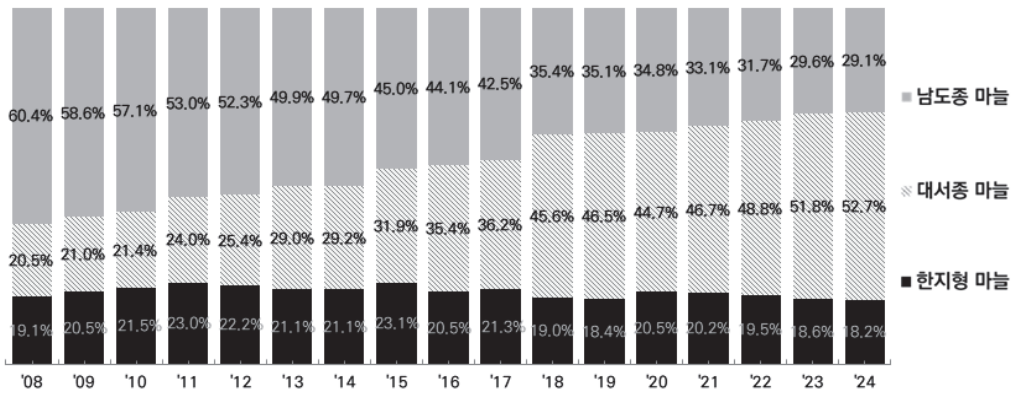
표 9-15 | 마늘 생산 동향(연산기준: 6월~익년 5월)

단위: ha, kg/10a, 톤, %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4년산		23,592	1,206	284,514
2023년산		24,629	1,269	312,438
평년		24,583	1,331	327,074
증감률	전년	-4.2	-4.9	-8.9
	평년	-4.0	-9.4	-13.0

주 1) 2019~2020년산은 통계청 조사 결과, 2021~2024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치
 2) 평년은 2019~2023년산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그림 9-6 | 마늘 품종별 재배면적 비중 변화(연산기준: 6월~익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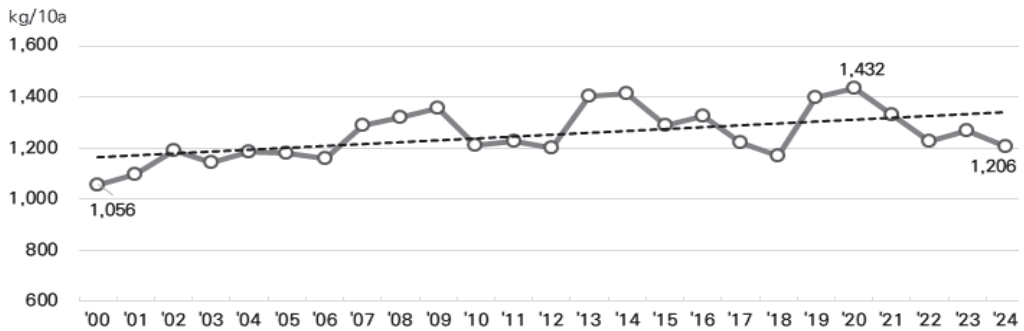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센터

- 2024년산 마늘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전년(2023년산) 대비 4.9%, 평년 대비 9.4% 감소한 1,206kg/10a이었다.
- 2024년은 월동기부터 4월까지 지속된 강우, 급격한 기온 변화, 일조 부족 등 생육기 기상 여건 악화와 생리장애 발생, 병 조기 출현으로 작황 피해가 증가한 해였다. 특히 남도

종 마늘을 중심으로 2차 생장(일명 벌마늘) 발생이 많았고, 대서종과 한지형 마늘도 생육 후기 병과 잎끝마름 증상이 확산되며 작황이 부진(구 비대기 및 수확기 큰 일교차와 집중호우 영향)했던 2023년산보다도 단수가 감소하였다.

- 마늘 10a당 수확량은 기상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지만, 단위당 수확량이 많은 대서종 면적 증가와 재배기술의 향상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20년 1,432kg까지 증가하였다. 기계화 도입 등으로 과거보다 재배농가의 생산 수준이 향상되었음에도 생육기 및 수확기 기상 변동성이 심해지며 최근(2022~2024년산) 단수는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 지속되었다(1,230kg/10a 수준).

그림 9-7 | 마늘 단위당 수확량 변화(연산기준: 6월~익년 5월)



주: 2000~2020년산은 통계청 조사 결과, 2021~2024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치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 2024년산 마늘 품종별 생산량은 한지형 3만 6천 톤, 난지형 24만 8천 톤으로 전년(2023년산) 대비 각각 9.2%, 8.9% 감소하였다.
 - 한지형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6.3% 감소한 4,292ha, 단수는 전년보다 3.1% 감소한 841kg/10a이었다.
 - 난지형 재배면적은 1만 9,300ha로 전년 대비 3.7% 감소하였고, 단수는 1,287kg/10a로 전년보다 5.4% 감소하였다.
 - 난지형 중 대서종 마늘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가 감소하여 2023년산과 평년 대비 각각 6.7%, 2.6% 감소하였다. 남도종 역시 전년 대비 13.7%, 평년 대비 29.8% 감소하였고 상대적으로 남도종 생산량 감소폭이 대서종보다 컸다.

표 9-16 | 마늘 품종별 생산 동향(연산기준: 6월~익년 5월)

단위: ha, kg/10a, 톤, %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한지형	2024년산	4,292	841	36,093	
	2023년산	4,581	868	39,764	
	평년	4,823	878	42,335	
	증감률	전년	-6.3	-3.1	-9.2
		평년	-11.0	-4.2	-14.7
난지형	2024년산	19,300	1,287	248,421	
	2023년산	20,048	1,360	272,674	
	평년	19,760	1,441	284,739	
	증감률	전년	-3.7	-5.4	-8.9
		평년	-2.3	-10.7	-12.8

주 1) 2019~2020년산은 통계청 조사 결과, 2021~2024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치
 2) 평년은 2019~2023년산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2.1.2. 수출입 동향

- 2024년산(6~12월) 마늘 수출량은 전년(2023년산) 동기(499톤)보다 86.1% 감소한 70톤으로, 평년 동기(626톤)에 비해서도 크게 적은 수준이다. 수출 확대 노력 등으로 마늘 수출량이 늘었던 2023년산과 달리 2024년산은 국내 생산량 감소로 수출 가능 물량이 적어지면서 전년 동기보다 크게 감소하였다.
 - 수출 형태별로는 건조마늘이 46톤으로 가장 많았고, 깎마늘 9톤, 초산조제마늘 8톤, 냉동마늘 6톤 순으로 집계되었다.
 - 마늘 수출량은 생산량 증감과 수출지원정책 추진 여부⁵⁾ 등에 따라 증감폭이 큰 편이며, 전체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최근 5개년 평균) 수준에 불과하다.
 - 2024년산 수출량의 42%는 미국으로, 16%는 베트남, 15%는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5) 과거 마늘 수출은 300여 톤 내외였으나, 2019~2020년은 깎마늘 수출 물류비 지원 확대로 평균 3천 톤까지 증가하였으며, 기존 통마늘 수출 위주에서 깎마늘과 건조마늘로 수출 형태가 전환됨(평년 기준 깎마늘·건조마늘 수출 비중 전체의 91% 차지).

표 9-17 | 마늘 수출 동향(연산기준: 6월~익년 5월)

단위: 톤, %

구분	2024년산	2023년산	평년
총 수출량	70 (100.0)	803 (100.0)	969 (100.0)
건조마늘	46 (65.6)	109 (13.5)	75 (7.8)
간마늘	9 (12.5)	664 (82.7)	807 (83.3)
초산조제마늘	8 (11.8)	23 (2.8)	20 (2.0)
냉동마늘	6 (9.3)	6 (0.8)	27 (2.7)
통마늘	1 (0.8)	1 (0.2)	41 (4.2)

주 1) 수출량은 간마늘, 냉동마늘, 건조마늘, 초산조제마늘에 수율을 적용하여 통마늘로 환산한 수치

2) 2024년산 수출량은 2024년 6~12월 누적 수출량이며, 평년은 2019년 6월~2024년 5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기준 평균

3) ()는 마늘 형태별 수출량 비중

자료: 관세청

- 2024년산(6~12월) 마늘 수입량은 3만 4천 톤으로, 국내산 마늘 가격이 상승하면서 2023년산 동기(22,435톤)와 평년 동기(25,788톤) 대비 각각 52.0%, 32.2% 증가하였다.
 - 2024년산 기준 수입 형태별 비중은 냉동마늘이 89.8%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초산조제마늘(8.9%), 간마늘(0.9%), 건조마늘(0.3%), 통마늘(0.1%) 순이었다.
 - 통마늘 수입(관세 360%)은 당해연도 국내산 마늘 수급에 따라 TRQ(저율관세할당량) 형태 등으로 수입되기 때문에 해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TRQ 도입 실적이 없어 통마늘 수입은 전년 동기(284톤)와 평년 동기(2,496톤) 대비 감소한 38톤이었다.
 -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냉동마늘은 관세가 낮고(27%) 외식업체 등 고정 수요처가 있어 매년 4만 톤 내외에서 꾸준히 수입되고 있다. 2016년 이전에는 비중이 마늘 수입의 50~60%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80% 이상(최근 5개년 평균)을 차지하고 있다.
 - 마늘 수입량은 전체 공급량의 약 14%(최근 5개년 평균)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가격 등락에 따라 증감하는 편이다. 국내산 공급량 부족 시기를 제외하고 5~6만 톤 내외의 수입이 유지되고 있다. 2023년산은 국내산 가격이 낮고 중국 마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4만 톤까지 감소하였다.

표 9-18 | 마늘 수입 동향(연산기준: 6월~익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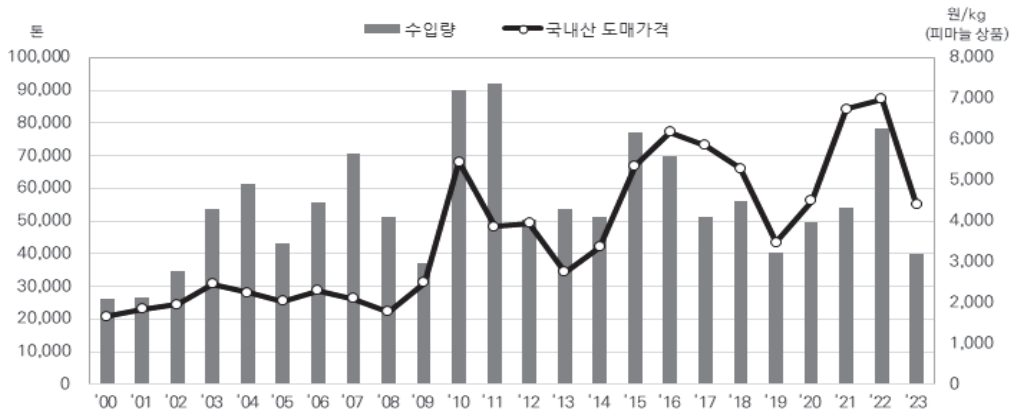
단위: 톤, %

구분	2024년산	2023년산	평년
총 수입량	34,105 (100.0)	39,805 (100.0)	47,712 (100.0)
냉동마늘	30,609 (89.8)	36,587 (91.9)	38,664 (81.0)
초산조제마늘	3,047 (8.9)	2,202 (5.5)	3,622 (7.6)
간마늘	300 (0.9)	424 (1.1)	524 (1.1)
건조마늘	110 (0.3)	308 (0.8)	281 (0.6)
통마늘	38 (0.1)	284 (0.7)	4,621 (9.7)

- 주 1) 수입량은 간마늘, 냉동마늘, 건조마늘, 초산조제마늘에 수율을 적용하여 통마늘로 환산한 수치
- 2) 2024년산 수입량은 2024년 6~12월 누적 수입량이며, 평년은 2019년 6월~2024년 5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기준 평균
- 3) ()는 마늘 형태별 수입량 비중

자료: 관세청

그림 9-8 | 연도별 마늘 수입량 및 도매가격 추이(연산기준: 6월~익년 5월)



- 주 1) 수입량은 간마늘, 냉동마늘, 건조마늘, 초산조제마늘에 수율을 적용하여 통마늘로 환산한 수치
 - 2) 국내산 도매가격은 통(피)마늘 상품 기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
- 자료: 관세청,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마늘이 일부 포함된 기타 소스와 혼합조미료의 2024년산(6~12월) 수입량⁶⁾은 각각 2,723톤 (2023년산 동기와 비슷), 146톤(2023년산 동기 대비 23.4% 증가)이었다.

6) 기타 소스의 HS CODE는 2103-90-9090이며, 혼합조미료 HS CODE는 2103-90-9030임. 기타 소스와 혼합조미료 수입량은 수율을 적용하여 통마늘로 환산한 수치임.

- 기타소스는 사용하기 편리하고 활용도가 많은 다양한 종류의 소스류가 수입되면서 최근 10년간(2014~2023년산) 연평균 5.8% 증가하였다.
- 2024년산 중국산 통마늘 국내 추정 판매(도매)가격은 전년(2023년산)보다 소폭 높은 4,970원/kg 내외로 추정된다(기본관세 360% 적용). 이는 국내산 도매가격(통마늘 상품 기준)의 103% 수준이다.
- 2024년산 중국산 냉동마늘 국내 추정 판매(도매)가격은 환율 상승(연산기준, 전년 대비 4%) 영향 등으로 2023년산(2,144원/kg)보다 높고, 국내산 통마늘 도매가격(중품 기준)의 54% 수준인 kg당 2,300원 내외로 추정된다(기본관세 27% 적용).

표 9-19 | 중국산 통마늘과 냉동마늘 국내 판매가격 추정(연산기준: 6월~익년 5월)

단위: 원/kg, %

구분	통마늘			냉동마늘		
	2024년산	2023년산	평년	2024년산	2023년산	평년
중국산 국내 판매가격(A)	4,973	4,849	4,972	2,285	2,144	1,756
국내산 도매가격(B)	4,833	4,403	5,212	4,199	3,769	4,648
A/B	102.9	110.1	95.4	54.4	56.9	37.8

주 1) 중국산 마늘의 국내 판매가능가격은 수입가격에 유통이윤 10%를 적용
 2) 2024년 6~12월은 확정치 기준, 2025년 1~5월은 추정치
 3) 중국산 통마늘 추정시 국내산 도매가격은 통(피)마늘 상품 기준, 2024년산은 6~11월 평균 가격
 4) 중국산 냉동마늘 추정시 국내산 도매가격은 통(피)마늘 중품 기준, 2024년산은 6~11월 평균 가격
 자료: 관세청,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은행, 농업관측센터

2.1.3. 공급 동향

- 2024년산 마늘 공급량은 생산량이 적어 전년(2023년산) 대비 4.0%, 평년 대비 10.6% 감소한 33만 7천 톤 내외로 추정된다. 단경기(2025년 1~5월) 마늘 수입량과 수출량, 기말재고 등에 따라 2024년산 공급량은 추후 달라질 수 있다.
 - 마늘 공급량은 2013년산 생산량이 증가하여 45만 톤까지 확대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014~2023년 기간 동안 연평균 1.8% 감소).
- 2024년산 마늘 자급률은 수입량 증가와 생산량 감소로 전년(2023년산) 대비 4.6%p 감소한 84.3%로 추정된다.

| 표 9-20 | 마늘 공급 동향(연산기준: 6월~익년 5월)

단위: 천 톤, %

구분	2024년산(p)	2023년산	평년	증감률	
				전년	평년
공급량 (f=a+b+c-d-e)	337	351	377	-4.0	-10.6
이월재고량(a)	2	2	3	-0.4	-40.2
생산량(b)	285	312	330	-8.9	-13.7
수입량(c)	52	40	48	31.8	9.5
수출량(d)	0.4	0.8	1.0	-46.5	-55.8
기말재고량(e)	1	2	3	-39.6	-54.8
자급률(b/f)	84.3	88.9	87.4		

- 주 1) 공급량은 이월재고량·생산량·수입량 합에 수출량·기말재고량을 제외한 수치
 2) 자급률은 생산량을 공급량으로 나누어 추정
 3) 수출입량은 깬마늘, 냉동마늘, 건조마늘, 초산조제마늘에 수율을 적용하여 통마늘로 환산한 수치
 4) 2021~2024년산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치이며, 2023~2024년산 기말재고는 정부비축물량 포함하여 최근 3개년 평균으로 가정
 5) 2024년산 수출량과 수입량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추정치
 6) 평년은 2019년 6월~2024년 5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기준 평균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2.1.4. 가격 동향

- 마늘 가격은 작황에 따른 국내 생산량 증감과 저장업체의 재고량 변동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으며, 정부 수급 대책 시행 여부도 가격 변동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2024년산 마늘 가격(6~12월, 상품 기준)은 국내산 생산량이 감소하여 전년(2023년산) 대비 상승하였다.
 - (난지형 마늘) 6월 난지형 마늘 평균 가격은 2023년산 저장마늘 재고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5.5%, 평년 대비 10.9% 하락한 4,370원/kg이었다. 7월부터는 햇마늘 생산량이 줄면서 11월까지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 (깬마늘) 6월 깬마늘 평균 가격은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4.6%, 8.0% 상승한 6,770원/kg이었으며, 12월까지 전년보다 높은 7천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2024년산 생산량이 평년에 비해 감소하였음에도 수입량이 증가하였고 마늘 소비는 줄어들면서 8월 이후 가격은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 마늘은 연도별로 가격 변동폭이 큰 편이나, 월별로는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이는 산지 수확 후 저장·가공 단계가 일정하고 상대적으로 연중 고정적인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9-21 | 마늘 월별 도매가격 동향(연산기준: 6월~익년 5월)

단위: 원/kg(상품), %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난지형 마늘	2024년산	4,366	4,670	4,936	4,973	5,008	5,047						
	2023년산	4,620	4,322	4,324	4,324	4,398	4,444	4,424	4,419	4,418	4,418	4,398	4,323
	평년	4,898	4,958	5,179	5,276	5,356	5,366	5,366	5,370	5,392	5,413	5,423	5,192
	동향률	전년	-5.5	8.1	14.2	15.0	13.9	13.6					
	평년	-10.9	-5.8	-4.7	-5.7	-6.5	-6.0						
간마늘	2024년산	6,768	6,829	6,919	7,071	7,068	7,005	7,057					
	2023년산	6,470	6,597	6,502	6,585	6,766	6,826	6,820	6,750	6,754	6,758	6,766	6,814
	평년	6,265	6,630	7,120	7,114	7,163	7,295	7,293	7,256	7,308	7,386	7,371	7,017
	동향률	전년	4.6	3.5	6.4	7.4	4.5	2.6	3.5				
	평년	8.0	3.0	-2.8	-0.6	-1.3	-4.0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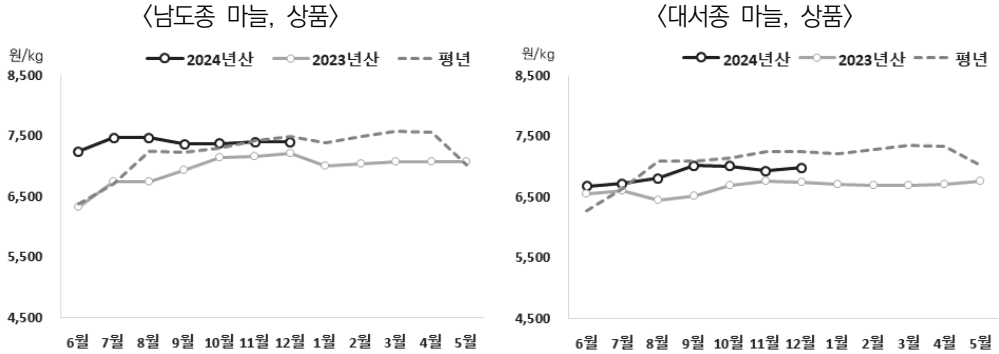
주 1)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

2) 평년 가격은 2019년 6월~2024년 5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기준 평균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간마늘 품종별 도매가격 추이를 보면, 2024년산 남도종 상품 평균 가격(6~12월)은 생산량이 감소(전년 대비 13.7%)하여 전년(2023년산) 동기 대비 7.1% 상승한 7,390원/kg이었다. 대서종 상품 가격은 6,880원/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상승하였다.
- 2024년산 남도종의 경우 생리장해(2차 생장, 스펀지마늘 등) 발생이 많았기 때문에 상품 생산 비중이 적어 대서종에 비해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 그림 9-9 | 깐마늘 품종별·월별 도매가격 동향(연산기준: 6월~익년 5월)



주 1)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
 2) 평년 가격은 2019년 6월~2024년 5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기준 평균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1.5. 소비 동향

- 2024년산 1인당 마늘 소비량은 2023년산(6.2kg)과 평년(6.7kg) 대비 각각 3.6%, 11.9% 감소한 5.9kg으로 추정된다.
 - 김치 소비 감소⁷⁾, 외식 빈도 증가 등 식생활이 변화하면서 2000년 9.2kg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6년 소비량이 6.1kg까지 감소한 이후 최근 6.5kg 내외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4년산의 경우 생산량이 감소하여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 1~2인 가구 증가, 4인 이상 감소⁸⁾ 등 가족 형태 변화와 마늘 구매 형태의 변화⁹⁾도 마늘 소비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7)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전국 표본가구의 만 1세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주요 식품군별 1일 섭취량 추이 제공)」 통계에 따르면, 2010~2021년 연간 1인당 배추 및 배추김치 섭취량은 각각 연평균 3.7%, 2.0% 감소하였음(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엽근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 「농업전망2024」 p.278).

8)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가구에서 1인과 2인 가구의 비중은 2000년 각각 15.5%, 19.1%에서 2023년 35.5%, 28.8%로 증가, 4인 이상 가구는 2000년 44.5%이었으나 2023년 16.8%로 1인 가구 비중의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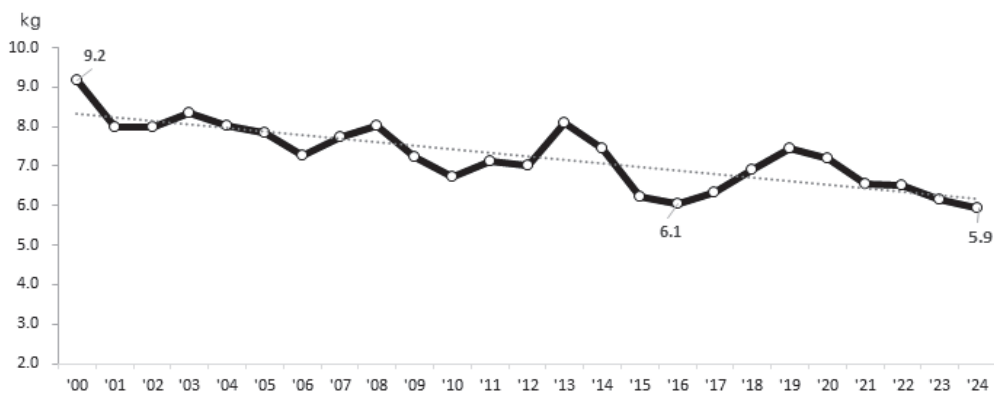
9) KREI 농업관측센터 소비자 조사 결과(2016~2023년), 주대마늘에서 깐마늘로 구매 형태가 변화한 것으로 조사됨. 주대마늘 구매 비중은 2016년 42.7%에서 2023년 21.5%까지 감소한 반면, 깐마늘은 2016년 대비 23.6%p 증가하였음. 마늘 수확기나 김장철에 대량으로 구매하는 주대마늘과 통마늘 구매가 감소하고 깐마늘과 다진마늘 구매가 증가한 것은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필요할 때마다 소량씩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표 9-22 | 마늘 1인당 소비 동향(연산기준: 6월~익년 5월)

구분	2024년산(p)	2023년산	평년
1인당 소비량(kg)	5.9	6.2	6.7
한지형(%)	10.0	10.7	10.6
난지형(%)	90.0	89.3	89.4

주 1) 1인당 소비량은 국내 생산량(종구용 제외)과 수입량, 이월재고량 합계에서 수출량과 기말재고량을 제외한 순 공급량에서 추계인구를 나누어 1인 기준으로 환산한 값
 2) 2024년산 소비량에서 활용된 수출량과 수입량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추정치
 3) 평년 소비량은 2019년 6월~2024년 5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기준 평균
 자료: 통계청(추계인구),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그림 9-10 | 마늘 1인당 소비량 추이(연산기준: 6월~익년 5월)



자료: 통계청(추계인구),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 2024년산 난지형 마늘 1인당 소비량 비중은 전년(2023년산)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최근 10년간(2014~2023년산) 88~9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가정에서 주로 소비되는 한지형의 경우 난지형 마늘에 비해 생산 점유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지만 소비량 비중은 10~11%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다.
- 소매유통채널 판매자료(Point-of-sale Data, POS 데이터¹⁰⁾)를 활용하여 가구 소비자의 마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량경제연구본부 식품원예경제연구실에서는 '2024년 농식품 소비정보 분석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주요 소매 유통업체의 판매 데이터 수집 및 소규모 업체 대상 표본조사를 통해 POS(Point-of-Sales)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주)마켓링크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판매액과 판매량 등의 POS 데이터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유통채널로 구분되며, 오프라인 채널은 전국 광역시·도의 대형마트, 기업형슈퍼, 편의점, 개인슈퍼의 판매 데이터를, 온라인 채널은 대형마트의 판매 데이터를 포함함. POS 데이터 상 마늘에는 원물형태인 통마늘 뿐만 아니라 깎마늘, 저민(편)마늘, 다진마늘, 냉동마늘을 포함하고 있음.

늘 소비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24년 가구 내 마늘 판매량은 전년(2023년) 동기 대비 6.5% 감소하였다.

- 유통채널별로 온라인(대형마트) 판매량은 전년(2023년) 동기와 평년 동기에 비해 각각 12.5%, 32.8% 증가했지만, 오프라인(대형마트, 기업형 슈퍼 등)은 각각 7.1%, 10.9% 감소하였다.
- 2019~2024년 기간 동안 마늘 판매량은 연평균 4.7% 감소하였다. 동기간 오프라인 판매량은 연평균 5.1% 감소하였고, 온라인(대형마트)¹¹⁾은 11.0% 증가하였다. 과거 대면 구매에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의 편리함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언택트 소비를 이어가고 있으며, 다양한 판매처를 통해 다양한 상품 구매가 가능한 점과 대량 구매 및 배송의 편의성(새벽배송 등) 등의 이유로 온라인 구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9-23 | 2024년 소매업태별 마늘 판매량 전·평년 대비 증감률(1~11월 합계 기준)

단위: %

구분	전체	대형마트 (오프라인)	기업형 슈퍼		편의점	개인슈퍼	대형마트 (온라인)
			체인슈퍼	조합마트			
전년 동기 대비	-6.5	-10.4	0.3	-5.4	-11.5	-10.4	12.5
평년 동기 대비	-9.8	-9.7	-20.2	-9.0	-38.3	-16.5	32.8

- 주 1) 대형마트는 1천 평 이상의 매장면적을 가지며, 상시 저가 판매 방식 운영 점포
- 2) 기업형슈퍼는 대형 유통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점포로 체인슈퍼(체인, 법인, 공공기관 등 단체에서 가맹점 및 직접 운영하는 점포) 및 조합마트(농수축협에서 직접 운영하는 점포(하나로클럽 제외))
- 3) 편의점은 편리함(convenience)을 개념으로 도입된 소형 소매점포로 24시간 오픈하며, 체인 혹은 가맹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
- 4) 개인슈퍼는 개인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점포(식자재마트 제외)
- 5) 평년은 2019~2023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량경제연구본부 식품원예경제연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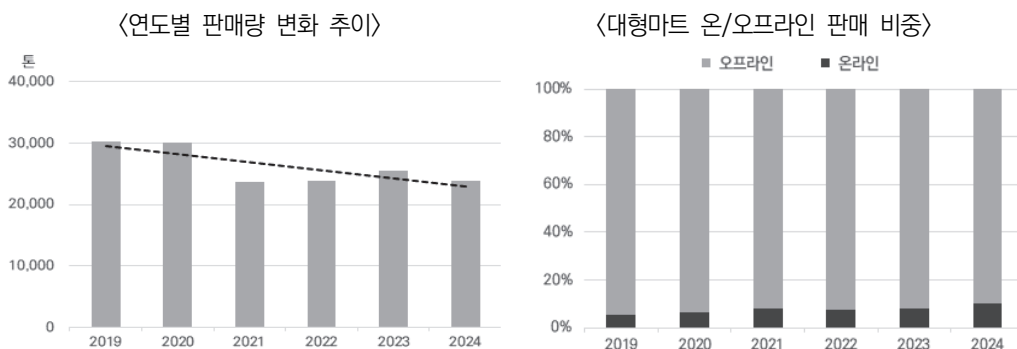
- 주요 유통채널 중 하나인 대형마트의 오프라인을 통한 마늘 판매 비중은 2019년 95%에서 2024년 90%로 감소하였고 온라인은 같은 기간 5%에서 10%로 증가하였다. 여전히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11) 2024년(1~11월) 온라인쇼핑 전체 거래액(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2025.1.3.)은 전년(2023년) 동기 대비 6.1% 증가하였으며, 농축수산물의 경우에도 18.5% 증가하였음. 농축수산물의 특성상 가격의 등락에 따라 월별로 증감을 보이지만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2019년 동기 대비 244.8% 증가).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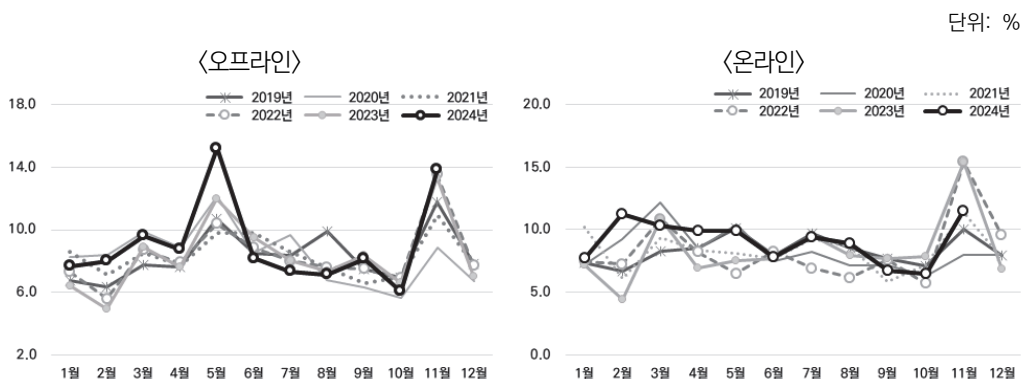
- 판매 비중을 월별로 살펴보면, 오프라인의 경우 5월(햇마늘 수확·출하기), 11월(김장철)과 같이 특정 시기에 소비자의 구매가 집중되었다. 반면, 온라인은 김장철인 11월을 제외하고는 연중 비슷하게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필요할 때 상시 구매가 편리한 온라인 특성상 일부 특정 시기에 구매가 집중되기보다 소비자 각자의 소비시기에 맞춰서 구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9-11 | 마늘 판매량 변화와 대형마트 온/오프라인 판매 비중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량경제연구본부 식품원예경제연구실

그림 9-12 | 대형마트의 유통채널별·월별 판매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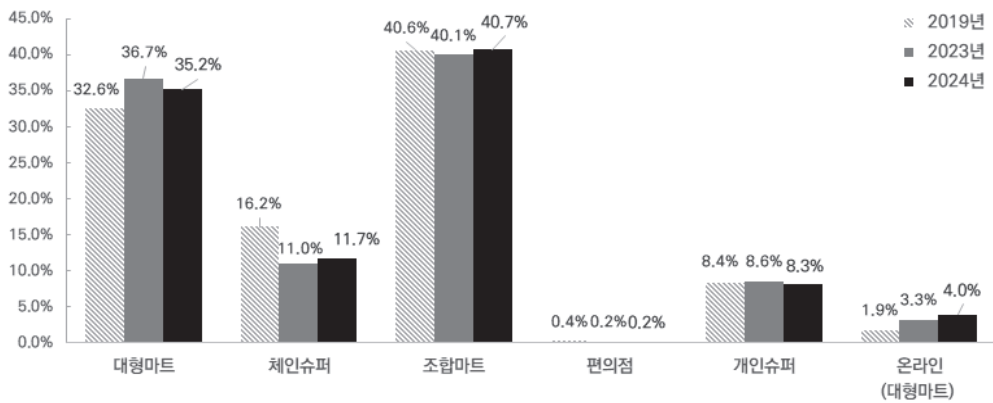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량경제연구본부 식품원예경제연구실

- 2024년 기준 소매업체별 마늘 판매 비중은 기업형슈퍼(체인슈퍼, 조합마트)가 52.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형마트(35.2%), 개인슈퍼(8.3%), 온라인(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오프라인 중 가장 판매 비중이 높은 기업형슈퍼는 체인슈퍼에서의 구매가 감소하며

2019년 56.8%에서 2023년 51.1%로 감소하였으나 2024년에는 상대적으로 대형마트에
서의 구매가 줄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 개인슈퍼는 2019년 8.4%에서 2021~2022년 약 10%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2024년 8.3%로 감소하였다.
- 온라인(대형마트)을 통한 판매는 2019년 1.9%에서 2023년 3.3%, 2024년 4.0%로 증가
하였다.

그림 9-13 | 소매업체별 마늘 판매 비중(소비자 주 구입처) 변화



주: 오프라인(대형마트, 기업형슈퍼(체인슈퍼, 조합마트), 편의점, 개인슈퍼)과 온라인(대형마트) 판매량 합계를
활용하여 소매업체별 판매 비중을 산출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량경제연구본부 식품원예경제연구실

2.1.6. 중국 산지 동향

- KREI 농업관측센터 중국 해외 모니터 조사 결과, 2024년산 중국 마늘 생산량은 재배면적
이 늘어 전년(2023년산)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24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전년(2023년산) 마늘 생산량이 줄어¹²⁾ 가격이 높게 형성되
면서 주산지(산동성, 하남성, 강소성, 하북성 등)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 급격한 기온 변화 등 생육기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일부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구
비대가 원활하지 않아 상품(上品) 생산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2) 2023년산 중국 마늘 생산량은 2,074만 톤으로 2022년산 대비 0.4% 감소(FAO, 2024.12.20.)

- 2024년산 중국 마늘 산지 가격은 생산량이 증가하여 2023년산과 평년에 비해 낮게 형성되었다.
 - 2024년산 마늘 산지가격은 재고량이 많아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나, 중국 내수와 수출 수요 증가(베트남,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등 동·서남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 증가¹³⁾), 저장업체의 출하조절로 10월부터 상승 추세에 있다.
- 2025년산 중국 마늘 재배면적은 최근 2년간 높았던 가격과 타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마늘 수익성 영향으로 2024년산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주산지 중심으로 지속된 재배에 따른 연작피해와 생산비 상승, 특히 금년 중국 내 마늘 종자 가격이 높음에 따라 2024년산 대비 면적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2. 2025년 상반기 전망

2.2.1. 2024년산 마늘 재고량 추정

- 2024년산 난지형 마늘 입고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2023년산)과 평년 대비 각각 5.8%, 6.8% 적은 9만 3천 톤 내외로 추정된다.
- KREI 농업관측센터 표본 저장·가공업체 조사 결과(2024. 12. 20.), 2024년산 난지형 마늘 누적출고량은 전년(2023년산) 동기 대비 7.7% 적은 3만 9천 톤 내외로 추정된다.
 - 소비 부진 장기화와 냉동마늘 중심의 수입량 증가¹⁴⁾ 영향 등으로 저장마늘 출고가 원활하지 않아 출고량이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 12월 말 기준, 감모율을 고려한 2024년산 난지형 마늘 재고량은 4만 9천 톤 내외로 2023년산 동기 대비 3.5%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13) 2024년 6~11월 중국 신선마늘(HS CODE: 07032010)의 수출 금액은 2023년 동기 대비 22.2% 증가하였고, 주요 수출국(수출 금액 상위 5개국)인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필리핀으로의 동기간 수출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6.5~76.9% 증가함(한국무역협회).

14) 2024년산(6~12월) 전체 수입량은 전년(2023년산) 동기 대비 52.0%, 냉동마늘은 54.0% 증가하였음.

| 표 9-24 | 2024년산 난지형 마늘 재고량 추정(2024년 12월 말 기준)

단위: 톤, %

구분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
2024년산		93,413	39,441	49,393
2023년산		99,127	42,753	51,187
평년		100,278	46,256	48,872
증감률	전년	-5.8	-7.7	-3.5
	평년	-6.8	-14.7	1.1

주 1) 재고량은 (입고량-출고량)에 감모율(2024년산 8.5%, 2023년산 9.2%, 평년 9.5%)을 적용한 국내산 기준이며, 국내산 정부 비축물량이 포함된 수치
 2) 평년 입고량은 2019~2023년산 입고량 추정치(농업관측센터)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기준 평균
 자료: 농업관측센터, 2024년 12월 20일 표본 저장·가공업체 조사치

- 2025년 상반기(1~5월) 깐마늘 도매가격은 재고량이 적어 2024년 동기(6,770원/kg)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현 수준(12월 가격 7,060원)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단경기 저장·가공업체의 출하시기 조절과 출하가 빠른 전남, 제주지역의 2025년산 마늘 작황에 따라 가격 등락폭은 달라질 수 있다.

2.2.2. 2025년산 마늘 재배면적 전망

- KREI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 결과(2024. 11. 20.), 2025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전년(2024년산) 대비 3.9% 감소한 2만 2,681ha로 조사되었다.
 - 2024년산 생산량 감소에도 수확기(6~8월) 가격 상승폭이 높지 않았고, 생산비(종구비·인건비 등) 상승과 노동력 부족 등으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고 재배가 용이한 타 작목(양파, 깨, 콩, 시금치 등)¹⁵⁾으로 전환한 농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품종별로 한지형 마늘 재배면적은 전년(2024년산) 대비 5.1% 감소하고, 난지형 마늘은 3.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난지형 마늘 가운데 대서종은 전년과 비슷하고 남도종은 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 마늘 10a당 노동투입시간(통계청, 2024년 기준)은 112.9시간이며, 양파 76.2시간, 콩 17.4시간(2023년 기준), 참깨·들깨 각각 74.3시간, 42.3시간(농촌진흥청, 「2023 농산물소득자료집(2024.9.)」)으로 마늘에 비해 노동투입시간이 적음.

- 한지형은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판매경로 부족 등으로 인해 휴경하거나 작목을 전환한 농가가 많아 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남도종 마늘은 생육기 잦은 강우와 기온 변화 등 이상기상 영향으로 인해 생리장해(별마늘, 스펀지마늘 등) 발생이 많아 재배면적 감소폭이 타 품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 9-25 | 2025년산 마늘 재배면적 추정

단위: ha, %

구분		한지형	난지형	전체
2025년산		4,072	18,609	22,681
2024년산		4,292	19,300	23,592
평년		4,655	19,469	24,124
증감률	전년	-5.1	-3.6	-3.9
	평년	-12.5	-4.4	-6.0

주 1) 2020년산은 통계청 조사 결과, 2021~2024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조사 결과, 2025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2) 평년은 2020~2024년산 재배면적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2024년 11월 2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지역별로는 대부분 지역에서 전년(2024년산) 대비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남도종 마늘 주산지인 제주와 호남지역은 생리장해 발생으로 인한 농가수취가격 하락과 농가 고령화 등으로 작목을 전환하거나 휴경한 농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대서종 마늘 주산지인 영남지역은 산지공판장 경락가격과 수매가격이 전년보다 상승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면적 감소폭이 적게 나타났다.

| 표 9-26 | 2025년산 마늘 지역별 재배면적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경기·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전체
-2.5	-2.7	-6.4	-2.2	-12.9	-3.9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2024년 11월 2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주산지 모니터 조사 결과, 12월 말 기준 2025년산 마늘 생육 상황은 초기 생육이 양호했던 전년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파종이 전년보다 지연되며 초기 생육이 우려되었으나

온화한 기온이 지속되어 생육이 정상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2025년산 마늘 파종시기는 9월 고온과 11월까지 지속된 잦은 비, 집중호우로 인해 전작 수확과 파종 준비 작업이 지연되어 전년(2024년산)보다 10일가량 늦춰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파종기간 내내 비가 자주 내리면서 늦게까지 파종이 이루어져 총 파종기간도 전·평년에 비해 길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 파종 이후에도 잦은 강우 등 고온다습한 기상이 이어지며 일부 지역에서는 옷자람과 습해, 해충이 발생하여 포전별 생육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기온 변화(12월 상순까지 온화한 기온 지속, 중순 기온 하락)로 피해가 일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현재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2.2.3. 2025년산 마늘 생산량 전망

- 현재까지의 생육 상황 등을 감안한 단수¹⁶⁾를 2025년산 마늘 추정 재배면적에 적용하여 생산량을 전망하였다.
- 이에 따라 2025년산 마늘 생산량은 2024년산 대비 4.8% 증가하나, 평년보다는 2.4% 감소한 30만 톤 내외로 전망된다.

표 9-27 | 2025년산 마늘 생산량 추정

단위: ha, kg/10a, 천 톤, %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5년산	22,681	1,315	298.2	
2024년산	23,592	1,206	284.5	
평년	24,124	1,266	305.4	
증감률	전년	-3.9	9.0	4.8
	평년	-6.0	3.9	-2.4

주 1) 2020년산은 통계청 조사 결과, 2021~2024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조사 결과, 2025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2) 평년은 2020~2024년산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16) 최근 기상변화로 인하여 단수 변동성이 컸으며, 특히 2024년산의 경우 동절기부터 이어진 기상 여건 악화(급격한 기온 변화, 잦은 강우 등)로 인해 2차 생장 등 생리장해 발생이 많아 단수가 크게 적었던 해였음. 이에 따라 2024년산을 제외하고 최근 4개년(2020~2023년산) 평균을 2025년산 단수로 추정하였음.

2.3. 중장기 전망

- 향후 10년간(2025~2034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연평균 1.1% 감소하여, 2029년 21,739ha, 2034년 20,510ha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농가 고령화¹⁷⁾와 생산비 상승¹⁸⁾, 대체재(양파 등) 재배면적이 동기간(2025~2034년산) 증가¹⁹⁾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 마늘 생산량은 단수 증가폭보다 재배면적 감소폭이 커, 2025년 30만 톤에서 2034년 28만 톤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재배 기술 발달(밭작물 기계 개발 및 보급²⁰⁾ 등)과 상대적으로 수량이 많은 난지형 대서종 마늘 생산 비중이 확대되면서 2025~2034년 기간 동안 연평균 0.3% 증가할 전망이다.

표 9-28 | 마늘 중장기 수급 전망(연산기준: 6월~익년 5월)

구분	단위	2024	전망		
			2025	2029	2034
재배면적	ha	23,592	22,681	21,739	20,510
총 공급량(A=B+C)	천 톤	339	352	345	334
국내 생산량(B)	천 톤	285	298	290	278
순수입량(C=D-E)	천 톤	52	52	55	56
수입량(D)	천 톤	52	53	55	56
수출량(E)	천 톤	0.4	0.4	0.4	0.4
자급률(B/A)	%	84.3	84.9	84.2	83.4

주 1) 2024년산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치, 2025년산 재배면적은 농업관측센터 조사치

2) 2024년산 수출입량, 2025년 이후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추정치

3) 총 공급량에는 이월재고량 미포함

4) 순수입량은 수입량과 수출량의 차이를 의미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통계청

17)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25년 20.3%에서 2034년 29.0%로 상승 전망(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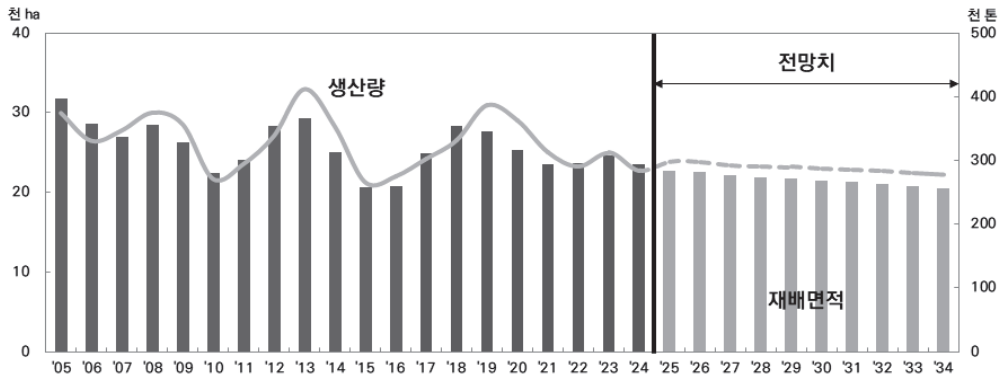
18) 생산비(통계청, 「농축산물생산비조사」)는 2005~2024년 기간 동안 연평균 5.9% 증가한 반면, 순수익(총수입-생산비)은 동기간 연평균 1.2% 감소함.

19) 양파 중장기 수급 전망 내용 참조

20) 마늘 평균 기계화율(농촌진흥청, 「밭작물 기계화율(전국, 2023년 기준)」)은 66.1%로 2015년(57.1%)에 비해 9.0%p 증가하였으며, 비닐피복과 수확단계 기계화율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마늘 수입량은 기타 관련 품목 및 냉동마늘 수요가 유지되면서 향후 10년간(2025~2034년 산) 연평균 0.7% 증가하여 2034년 5만 6천 톤 내외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2025~2034년간 마늘 총 공급량은 농가 고령화 및 대체 작물로의 전환 등으로 2025년 35만 톤에서 2034년 33만 톤 내외로 감소할 전망이다. 자급률은 2034년까지 80%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9-14 | 마늘 생산 동향 및 중장기 전망(연산기준: 6월~익년 5월)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통계청

3.1. 수급 동향

3.1.1. 생산 동향

- 2024년산 건고추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 영향으로 평년 대비 8.7% 적으나, 단수 증가 영향으로 2023년산 대비 2.1% 많은 6만 1천 톤이었다.
 - 최근 10년간 건고추 생산량은 재배면적 및 단수 감소 영향으로 연평균(2015~2024년산) 5.1% 감소하였다.

표 9-29 | 건고추 생산 동향(연산기준: 8월~익년 7월)

단위: ha, kg/10a, 톤, %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4년산	26,436	232	61,272	
2023년산	27,132	221	60,018	
평년	30,853	218	67,143	
증감률	전년	-2.6	4.9	2.1
	평년	-14.3	6.5	-8.7

주 1) 2021~2024년산 단수는 농업관측센터 조사치

2) 평년은 2019~2023년산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 2024년산 재배면적은 2023년산 및 평년 대비 각각 2.6%, 14.3% 감소한 2만 6,436ha였다. 경영비 상승, 농가 고령화 등의 이유로 옥수수, 팥콩, 참깨, 콩 등으로 작목이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 최근 10년 건고추 재배면적은 연평균(2015~2024년산) 2.9% 감소하였다. 2015년 재배 면적은 3만 5천 ha였지만, 2017년 2만 8천 ha, 2023년 2만 7천 ha, 2024년 2만 6천 ha로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 2024년산 건고추 단수는 2023년산 및 평년 대비 각각 4.9%, 6.5% 많은 232kg/10a이었다. 고온으로 중기 착과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초기와 후기 작황이 양호하여 단수가 증가하였다.
 - 2000년 이후 건고추 단수는 181~292kg/10a 사이에서 결정되었다. 이상고온 심화 등으로 최근 5년(2019~2023년산) 평균 단수는 222kg로 이전 5년(246kg) 대비 감소하였다.

3.1.2. 수출입 동향

- 2024년산(8~12월) 건고추 수출량은 2023년(2만 2천 톤) 및 평년(2만 5백 톤) 대비 각각 4.5%, 14.4% 많은 2만 4천 톤이었다. 수출 형태는 기타 소스가 69.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건고추류(11.7%), 혼합조미료(9.7%) 순이었다. 고춧가루 수출 확대로 전체 수출량 중 건고추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과거보다 증가하였다.

표 9-30 | 건고추 수출 동향(연산기준: 8월~익년 7월)

단위: 톤, %

구분	2024년산	2023년산	평년
총 수출량	23,571 (100.0)	53,180 (100.0)	51,600 (100.0)
기타 소스	16,272 (69.0)	37,774 (71.0)	36,406 (70.6)
건고추류	2,760 (11.7)	5,228 (9.8)	5,336 (10.3)
혼합조미료	2,280 (9.7)	5,054 (9.5)	4,931 (9.6)
고추장	1,355 (5.8)	2,993 (5.6)	2,936 (5.7)
김치	903 (3.8)	2,130 (4.0)	1,990 (3.9)
냉동고추	1 (0.0)	1 (0.0)	1 (0.0)

주 1) ()는 건고추 형태별 수출량 비중

2) 수출량은 기타소스, 혼합조미료, 냉동고추, 고추장, 김치에 포함되어있는 고춧가루에 수출 적용을 통해 건고추로 환산한 중량과 건고추류 수출량을 합한 수치이며, 휴대용 반출량은 미포함

3) 고춧가루는 수출(63.8%)을 적용한 후, 건고추로 환산하여 건고추류 수출량에 포함

4) 2024년산 수출량은 2024년 8~12월 누적 수출량이며, 평년은 2019년 8월~2024년 7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기준 평균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 떡볶이·불닭소스 등을 포함하는 기타소스 수출량은 1만 6천 톤으로 전년과 비슷하였다.
 - 기타소스 수출국은 중국(25.0%), 미국(16.5%), 일본(9.1%), 대만(5.6%) 순이었다. 주요 수출국 중 중국,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전년 대비 각각 0.5%p, 3.2%p 증가하였고, 러시아로의 수출은 1.4%p 감소하였다.
- 2024년산(8~12월) 건고추 수입량은 수입 수요 증가로 평년(5만 5천 톤) 대비 4.8% 많은 5만 8천 톤이었다. 2023년산 대비 도매가격이 낮고, 검역 문제로 수입이 원활하지 않아²¹⁾ 2023년(6만 1천 톤)보다는 5.5% 감소하였다.

표 9-31 | 건고추 수입 동향(연산기준: 8월~익년 7월)

단위: 톤, %

구분	2024년산	2023년산	평년
총 수입량	57,871 (100.0)	139,114 (100.0)	133,187 (100.0)
기타 소스	30,000 (51.8)	73,729 (53.0)	64,268 (48.3)
냉동고추	15,512 (26.8)	37,943 (27.3)	45,478 (34.1)
김치	6,497 (11.2)	13,931 (10.0)	13,211 (9.9)
건고추류	4,186 (7.2)	10,207 (7.3)	7,350 (5.5)
혼합조미료	1,672 (2.9)	3,291 (2.4)	2,861 (2.1)
고추장	3 (0.0)	13 (0.0)	18 (0.0)

주 1) ()는 건고추 형태별 수입량 비중

2) 수입량은 기타소스, 혼합조미료, 냉동고추, 고추장, 김치에 포함되어있는 고춧가루에 수출 적용을 통해 건고추로 환산한 중량과 건고추류 수입량을 합한 수치이며, 휴대용 반출량은 미포함

3) 고춧가루는 수출(63.8%)을 적용한 후, 건고추로 환산하여 건고추류 수입량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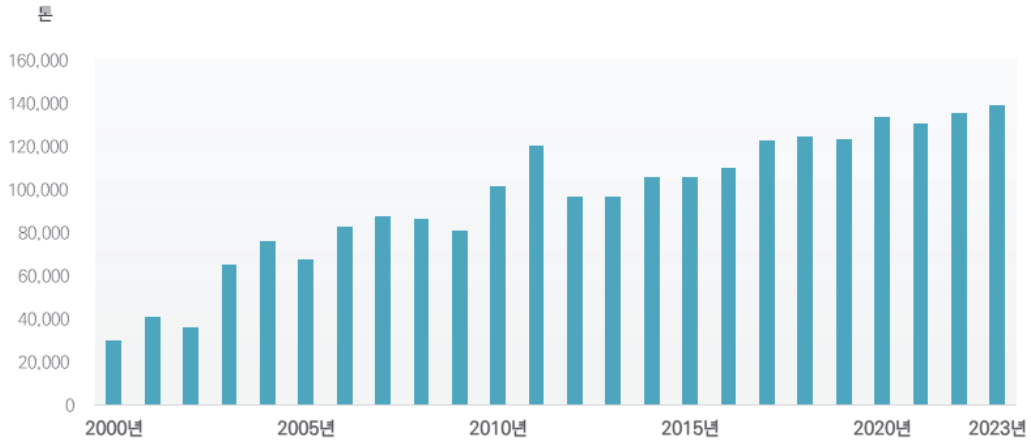
4) 2024년산 수입량은 2024년 8~12월 누적 수입량이며, 평년은 2019년 8월~2024년 7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기준 평균

자료: 관세청

- 건고추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건고추 수입량은 13만 9천 톤으로 수입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았다. 건고추 수입량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3.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1) 전시현, "대만의 적발로 농약 검출 사실 파악, 국내 검역 허점 드러나", 농업정보신문, 2024.10.28.

그림 9-15 | 연도별 건고추 수입량 추이



자료: 관세청

- 수입 형태별로 건조·분쇄 등 2차 가공이 필요한 냉동고추 수입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24년 냉동고추 수입 비율은 26.8%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0.5%p, 7.3%p 감소하였다.
 - 2024년 냉동고추 톤당 수입단가는 2023년산 중국산 건고추 재고량이 많아 2023년(720달러) 대비 11.2% 하락한 639달러, 고춧가루로 납품 시 국내 출하 가능가격은 전년 대비 7.8% 낮은 4,740원/600g으로 추정된다.
- 냉동고추와 달리 사용이 편리한 혼합조미료와 기타 소스 수입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시중에 판매 중인 고추장의 상당수가 고춧가루를 이용하지 않고 가격이 낮은 중국산 고추 양념과 혼합양념 분말을 원료로 하기 때문이다.²²⁾
- 위와 같은 이유로 기타소스 수입량은 2021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 냉동고추 수입량은 감소하고 있다. 2023년 냉동고추 수입량은 2016년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당분간 비슷한 추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22) 안형준, “고춧가루 대신 중국산 고추양념 사용…‘무늬만 고추장’ 많다”, 한국농어민신문, 2023.5.26.

그림 9-16 | 연도별 냉동고추와 기타소스 수입량 추이



자료: 관세청

- 여름철 고랭지배추 도매가격 상승 영향으로 중국산 김치 수입량이 증가하여 김치에 포함된 건고추 수입량 비율은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2%p, 1.3%p 증가한 11.2% 이었다.

3.1.3. 공급 동향

- 2024년산 건고추 공급량은 생산량과 수입량이 많아 2023년산 및 평년 대비 각각 4.5%, 1.7% 증가한 15만 톤 내외로 전망된다. 평년 대비 생산량이 크게 줄었지만 수입량 증가분이 더 커 전체 공급량이 증가하였다. 2024년산 수입·수출량, 기말재고 등에 따라 최종 공급량은 달라질 수 있다.
- 2024년산 건고추 자급률은 수출량 증가 등 영향으로 2023년산 및 평년 대비 각각 1.0%p, 3.4%p 하락한 41%로 전망된다. 2023~2024년산 생산량이 평년보다 적어 자급률도 낮게 유지되고 있다.

표 9-32 | 건고추 공급 동향(연산기준: 8월~익년 7월)

단위: 천 톤, %

구분	2024년산(p)	2023년산	평년	증감률	
				전년	평년
공급량 (f=a+b+c-d-e)	150	143	147	4.5	1.7
이월재고량(a)	9	7	6	38.9	64.3
생산량(b)	61	60	67	2.1	-8.7
수입량(c)	143	139	133	2.9	7.5
수출량(d)	57	53	52	7.1	10.3
기말재고량(e)	7	9	7	-24.8	0.0
자급률(b/f)	40.9	41.9	44.3		

주 1) 공급량은 이월재고·생산·수입량 합에 수출·기말재고량을 제외한 수치
 2) 자급률은 생산량을 공급량으로 나누어 추정
 3) 2024년산 수출량과 수입량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추정치
 4) 평년 공급량은 2019년 8월~2024년 7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기준 평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3.1.4. 가격 동향

- 2024년산(8~12월) 건고추 화건 상품 가격은 2023년산(13,840원) 대비 3.8% 낮은 13,310원 /600g이었다. 그러나 재배면적 감소 영향으로 평년(12,820원)보다는 3.8% 상승하였다.
 - 8월 햇고추 도매가격은 출하 초기 수확량이 크게 많아 2023년 8월 대비 8.3% 낮은 14,080원이었다.
 - 9월 가격은 8월부터 지속된 고온·가뭄에 착과와 과 비대가 지연되어 전년 대비 1.2% 높은 13,440원이었다.
 - 9월 하순부터 기상여건이 좋아 끝물 수확량이 증가하여 10월 가격은 2023년 및 전월 대비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표 9-33 | 건고추 화건 월별 도매가격 동향(연산기준: 8월~익년 7월)

단위: 원/600g(상품), %

구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2024년산	14,083	13,444	13,136	12,950	12,942							
2023년산	15,364	13,287	13,499	13,533	13,524	13,513	13,402	13,440	13,421	13,499	13,664	13,731
평년	13,610	12,766	12,716	12,554	12,469	12,400	12,335	12,266	12,246	12,280	12,365	12,504
변동률	전년	-8.3	1.2	-2.7	-4.3	-4.3						
	평년	3.5	5.3	3.3	3.2	3.8						

주 1)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
 2) 평년 가격은 2019년 8월~2024년 7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기준 평균
 3) 8월은 햇고추 기준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1.5. 소비 동향

- 2024년산 건고추 1인당 소비량은 공급량 증가 영향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5.2%, 1.6% 많은 2.9kg 내외로 추정된다.

표 9-34 | 건고추 1인당 소비 동향(연산기준: 8월~익년 7월)

단위: k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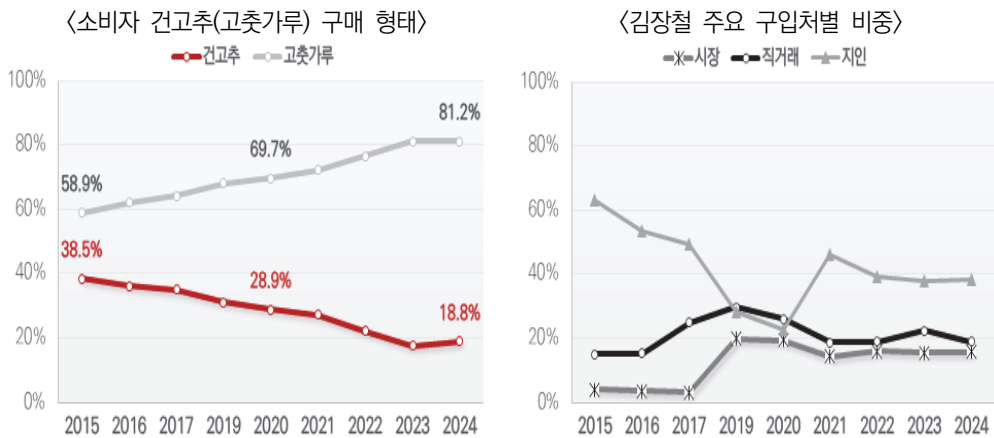
2024년산(p)	2023년산	평년	증감률	
			전년	평년
2.9	2.8	2.9	5.2	1.6

주 1) 1인당 소비량은 순 공급량에서 추계인구를 나누어서 산출
 2) 2024년산 소비량에서 수출량, 수입량은 추정치
 3) 평년 소비량은 2019~2023년산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 소비자의 건고추 소비 행태를 살펴보면 고춧가루 구매 비율 증가가 가장 눈에 띈다. 2015년 건고추(고춧가루) 구매 형태 조사 결과, 건고추를 구매하는 소비자 비율은 전체의 38.5%, 고춧가루 구매 비율은 58.9%였다. 그러나 2024년에는 건고추 구매 비율이 18.8%로 19.7%p 감소하였고, 고춧가루는 81.2%로 22.3%p 증가하였다.
- 고춧가루를 구매하는 소비자 비율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건고추와 홍고추를 구매해 고춧가루로 빵아서 사용하던 소비자가 사용이 편리한 고춧가루로 구매 행태를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다.

- 건고추(고춧가루) 조달은 과거부터 부모, 친지, 지인 등을 통한 방법과 직거래가 가장 흔한 형태이다. 2015년 건고추(고춧가루) 구입처별 비율은 부모, 친지, 지인이 63.2%였고, 산지 직거래 15.1%, 소매점 3.1%, 도매(재매)시장 4.1%, 대형마트 2.1% 순이었다.
- 2024년에는 지인을 통한 조달이 38.3%로 2015년 대비 24.9%p 감소하였다. 반면 시장과 대형마트 비율은 각각 15.6%, 14.1%로 증가하였다. 소매점 비율은 1.8%로 감소하였다.
- 건고추를 농가에서 직접 구매하는 비율은 2015년 15.1%에서 2024년 18.9%로 소폭이지만 증가하였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 건고추 수확시기에 생산자에게 직접 주문하고, 배송받는 방식이다.
 - 생산자들은 수확기에 건고추 작황 사진과 함께 품종, 관리 방법 등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전화·메시지 등으로 주문을 받아 소비자에게 배송한다. 생산자는 타 판매 방식보다 농가 수취가격이 높고, 소비자는 우수 품질의 고추를 구매할 수 있어 직거래 비율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9-17 | 김장철 건고추 소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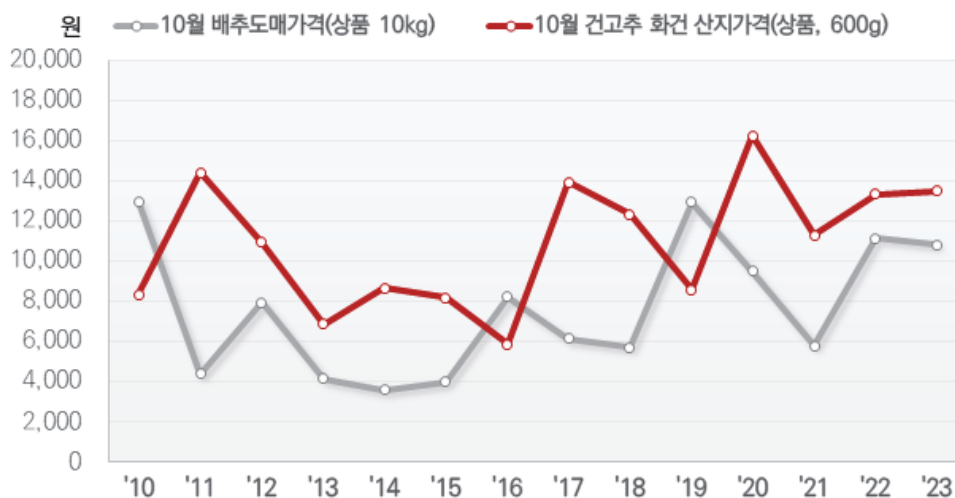


주: 2018년은 조사 결과 없음.
자료: 농업관측센터 김장 소비자조사

- 2024년 10월 농업관측센터 소비자 조사 결과, 2024년 김장철 건고추 구매량은 김장 규모 감소로 2023년 대비 6.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0년부터 10월 배추 도매가격과 서안동농협 건고추 산지 가격을 비교한 결과, 대체로

배추 가격이 상승하면 양념류 수요 감소로 건고추 도매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18 | 10월 배추 및 건고추 가격 추이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서안동농협 고추공판장

3.1.6. 중국 산지 동향

- KREI 농업관측센터 중국 해외 모니터 조사 결과, 2024년산 건고추 생산량은 단수 감소로 2023년산 대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24년산 재배면적은 2023년산과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8~9월 잦은 비로 병과가 증가하여 2023년산 대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내몽고 지역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2024년산 중국 건고추 가격은 산지 공급량 감소 영향으로 2023년산 대비 강보합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3.2. 2025년 상반기 전망

3.2.1. 2024년산 건고추 재고량 추정

- 2024년 12월 말 기준, 2024년산 건고추 재고량은 생산량과 수입량이 많아 2023년산 및 평년 대비 각각 12.4%, 10.2% 증가한 1만 3천 톤 내외로 전망된다.
- 재고량이 평년 대비 많지만 수확기 생산량에 의해 결정된 가격 수준이 유지되기 때문에 2025년 상반기 건고추 도매가격은 2024년 상반기 대비 낮으며, 평년 대비 높은 13,000원 /600g 내외로 전망된다.
- 농가가 보유한 2024년산 재고 비중은 2.8%로 도매가격 하락 영향으로 2023년산(2.1%)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 농가 재고는 2025년 1~2월 중 50% 내외가 출하될 예정이며, 이후에는 2025년산 수확기까지 소량씩 출고할 예정이다.

표 9-35 | 2024년산 건고추 재고량 추정(2024년 12월 말 기준)

단위: 천 톤, %

구분	생산량 (A)	8~12월 수입량 ·기말재고(B)	공급량 (C=A+B)	8~12월 수출 ·소비량(D)	12월 말 재고량 (E=C-D)	
2024년산	61.3	69.3	130.5	117.4	13.1	
2023년산	60.0	70.0	130.0	118.3	11.1	
평년	67.1	62.6	129.5	117.6	11.9	
증감률	전년	2.1	-1.1	0.4	-0.8	12.4
	평년	-8.7	11.1	0.8	-0.2	10.2

주: 평년은 2019-2023년산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농업관측센터, 통계청, 관세청

3.2.2. 2025년산 건고추 재배의향면적 전망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 결과(2024. 12. 20.), 2025년산 건고추 재배의향면적은 2024년산 및 평년 대비 각각 2.9%, 12.6% 감소한 25,661ha 내외로 전망된다.
- 경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재배면적이 2024년산 대비 3~6%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대 주산지인 경북지역은 대농 위주로 면적이 증가하여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선호 품종은 2024년산과 마찬가지로 복합내병계(27.5%), 탄저내병계(21.2%) 등 내병성 품종이 주를 이루었다.
- 재배의향면적이 미정인 농가가 많아 실제 재배면적은 변동될 수 있다

표 9-36 | 2025년산 건고추 재배의향면적

단위: ha, %

2025년산	2024년산	평년	증감률	
			전년	평년
25,661	26,430	29,349	-2.9	-12.6

주: 평년은 2020~2024년산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농업관측센터, 통계청

3.3. 중장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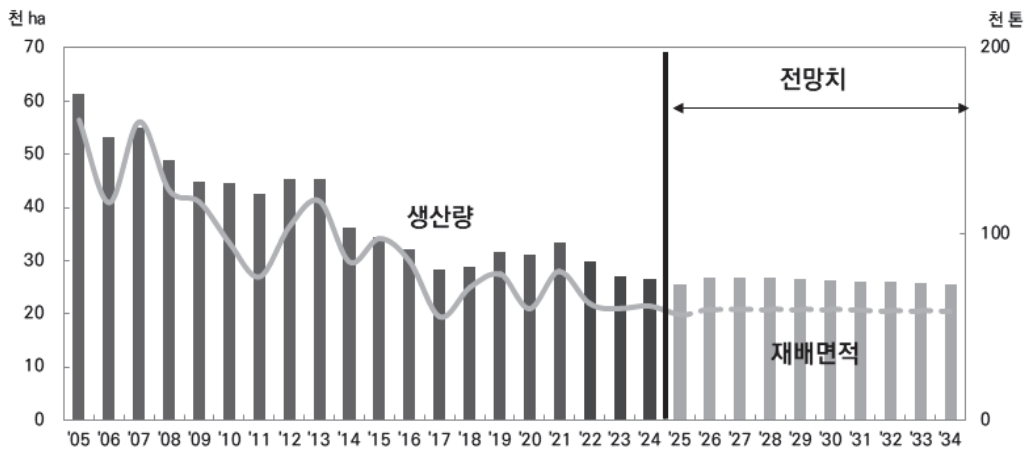
- 2025~2034년 건고추 재배면적은 연평균 0.1% 감소하여 2034년 약 2만 5천 ha 내외로 전망된다.
 - 최근 재배면적이 계속 감소하였기 때문에 2026년 재배면적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재배면적은 단위면적당 노동 투입시간이 많은 작목 특성상 농촌 고령화 심화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여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 2025~2034년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 영향으로 5만 9천 톤 내외를 유지하겠다.
- 2025~2034년 수입량은 14만 4천 톤에서 14만 7천 톤으로 연평균 0.2% 증가할 전망이다. 2024년 기준 수입량이 전체 공급량 중 68.1%를 차지하는 만큼 완만한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 2025~2034년 수출량은 고추장류, 기타소스 등 수출 확대로 5만 7천 톤에서 6만 2천 톤으로 0.2% 증가할 전망이다.
- 건고추 총 공급량은 2034년에도 14만 3천 톤으로 2025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 증가보다 수출량 증가 영향이 커 2034년 자급률은 41% 내외를 유지할 전망이다.

표 9-37 | 건고추 중장기 수급 전망(연산기준: 8월~익년 7월)

구분	단위	2024	전망		
			2025	2029	2034
재배면적	ha	26,430	25,661	26,507	25,419
총 공급량(A=B+C)	천 톤	147	143	146	143
국내 생산량(B)	천 톤	61	57	60	59
순수입량(C=D-E)	천 톤	86	87	87	84
수입량(D)	천 톤	143	144	146	147
수출량(E)	천 톤	57	57	59	62
자급률	%	41.7	39.6	40.8	41.0

주 1) 2024년 생산량은 KREI 전망치이며, 공급량에는 이월재고량 미포함
 2) 2024년산 수출입량, 2025년 이후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추정치
 3) 2025년산 재배면적은 농업관측센터 조사치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통계청

그림 9-19 | 건고추 생산 동향 및 중장기 전망(연산기준: 8월~익년 7월)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통계청

4.1. 수급 동향

4.1.1. 생산 동향

- 2024년 대파 재배면적은 전반적인 정식기 가격 상승(전년 대비 23.8%)으로 전년보다 21.6% 증가한 13,517ha이다.
 - 재배면적 기준으로 가장 크게 증가한 작형은 겨울대파(682ha 증가)이며, 증감율 기준으로는 가을대파(27.9% 증가)로 추정된다.
 - 대파 재배면적은 2012년 9,466ha 감소하였으나 최근 10년간 정식기와 출하기 가격 수준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면서 평년(1만 2천 ha)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9-38 | 대파 작형별 재배면적

단위: ha, %

구분	2024년	2023년	평년	증감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전체	13,517	11,116	11,683	21.6	15.7
봄대파	3,196	2,527	2,777	26.5	15.1
고랭지대파	3,013	2,515	2,675	19.8	12.6
가을대파	2,530	1,978	2,152	27.9	17.6
겨울대파	4,778	4,096	4,079	16.7	17.1

주: 평년 재배면적은 2019년 1월~2023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 2024년 대파 생산량은 지속된 고온으로 단수가 감소하였으나, 재배면적 증가폭이 커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17.2%, 16.8% 증가한 39만 6천 톤 내외로 추정된다.

- 5~6월 출하되는 봄대파(경기·경북·전북지역 등)는 생육기 저온으로, 7~11월 출하되는 고랭지 및 가을대파는 생육기 큰 일교차와 6~9월 지속된 고온으로 단수가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 반면 12월~익년 5월까지 출하되는 겨울대파 단수는 생육기(7~8월) 집중호우 피해가 적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표 9-39 | 대파 생산량 추정

단위: ha, kg/10a, 톤, %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4년	13,517	2,931	396,227	
2023년	11,116	3,041	338,093	
평년	11,620	2,960	339,360	
증감률	전년	21.6	-3.6	17.2
	평년	16.3	-1.0	16.8

- 주 1) 2024년 단수는 농업관측센터 추정 단수를 적용
 2) 평년 생산량은 2019년 1월~2023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4.1.2. 수출입 동향

- 국내산 대파는 주로 신선대파와 냉동대파 위주로 수출되고 있으나, 전체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으로 적은 수준이다. 2024년 대파 수출량은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나, 평년보다 감소한 32톤이었다.

| 표 9-40 | 대파 수출 동향

단위: 톤, %

구분	2024년	2023년	평년
총 수출량	32 (100.0)	28 (100.0)	39 (100.0)
신선대파	12 (37.5)	17 (60.7)	14 (34.6)
건조대파	3 (9.4)	5 (17.9)	25 (64.1)
냉동대파	17 (53.1)	6 (21.4)	1 (1.3)

- 주 1) 신선대파는 HS코드 0703-90-9000(양파·쪽파·마늘 리크 외 기타 파속의 신선 또는 냉장채소), 0703-90-2000(신선대파·쪽파), 건조대파는 HS코드 0712-90-2030(파), 냉동대파는 2022년 신설된 HS코드 0710-80-9010(냉동채소기타)와 평년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통계(0710-80-9000, 냉동채소기타)를 사용하였으며, 총수출량은 건조대파에 수출을 적용하여 신선대파로 환산한 물량
 2) 평년 수출량은 2019년 1월~2023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
 3) ()는 대파 형태별 수출량 비중
 자료: 관세청, 농림축산검역본부

- 2024년 대파 수입량은 국내산 대파 가격이 전년보다 높아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34.1%, 35.4% 증가한 5만 8천 톤 내외이다.
- 특히 신선대파 수입량은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186.0%, 226.9% 증가한 2만 4천 톤 내외였다. 국내 대파가격 상승에 따른 할당관세 물량(4,800톤) 확대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표 9-41 | 대파 수입 동향

단위: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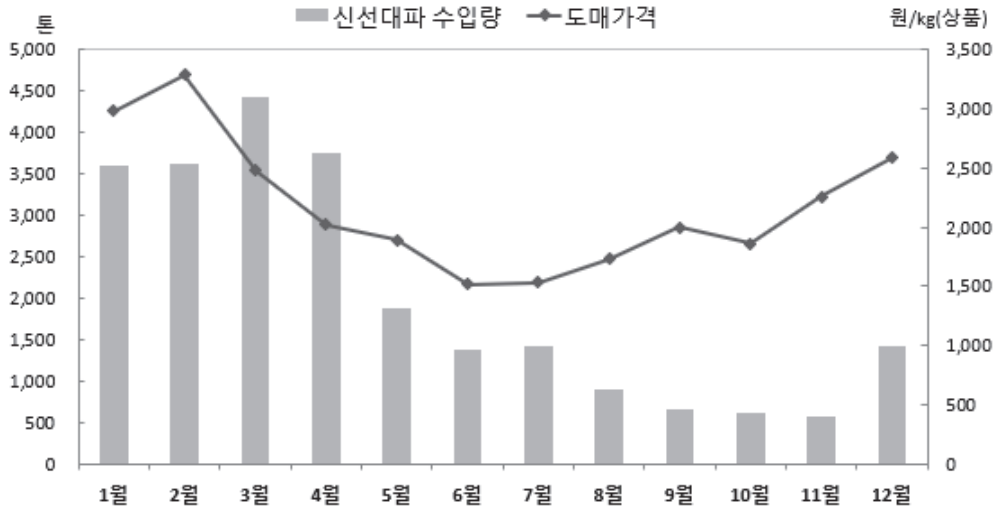
구분	2024년	2023년	평년	증감률	
				전년	평년
총 수입량	58,568 (100.0)	43,671 (100.0)	43,266 (100.0)	34.1	35.4
신선대파	24,219 (41.4)	8,469 (19.4)	7,408 (17.1)	186.0	226.9
건조대파	17,658 (30.1)	19,000 (43.5)	20,156 (46.6)	-7.1	-12.4
냉동대파	16,691 (28.5)	16,202 (37.1)	15,702 (36.3)	3.0	6.3

주 1) 신선대파는 HS코드 0703-90-9000(양파-쪽파-마늘-리크 외 기타 파속의 신선 또는 냉장채소), 0703-90-2000(신선대파-쪽파), 건조대파는 HS코드 0712-90-2030(파), 냉동대파는 2022년 신설된 HS코드 0710-80-9010(냉동채소기타)와 평년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통계(0710-80-9000, 냉동채소기타)를 사용하였으며, 총수입량은 건조대파에 수율을 적용하여 신선대파로 환산한 물량

2) ()는 대파 형태별 수입량 비중

자료: 관세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그림 9-20 | 신선대파 월별 수입 동향



자료: 관세청,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24년 중국산 신선대파의 국내 판매가격은 1,540원으로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13.9%, 2.4% 상승하였다.
 - 2024년 중국 대파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4.8% 증가하였으나, 여름철 기상악화(집중호우, 고온 등)로 작황이 부진하여 출하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2024년 중국산 신선대파 가격은 국내산 도매가격의 70.8%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9-42 | 중국산 신선대파 국내 판매가격 추정

단위: 원/kg, %

구분	2024년	2023년	평년	증감률	
				전년	평년
중국산 국내판매가격(A)	1,540	1,350	1,510	13.9	2.4
CIF가격	980	850	950	15.2	2.4
통관 제비용 ¹⁾	570	510	552	11.8	2.4
국내산 도매가격(B) ²⁾	2,180	2,130	1,820	2.2	19.6
A/B	70.8	63.5	82.7		

주 1) 통관 제비용은 관세(27%), 수입 제비용, 수입업체 이윤, 도매시장 상장수수료 등이 포함

주 2) 국내산 도매가격은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대파 상품 연평균 가격

자료: 관세청, 서울시농수산물공사, 한국은행, 농업관측센터

4.1.3. 공급 동향

- 국내 생산량과 수출입량을 고려한 2024년 대파 공급량은 45만 5천 톤으로 전년 대비 19.1% 증가하였다. 생산량과 순수입량 모두 각각 전년 대비 17.2%, 34.1%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2024년 대파 자급률은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전년과 평년 대비 낮은 87.1%로 추정된다.

표 9-43 | 대파 공급 동향

단위: 천 톤, %

구분	2024년	2023년	평년	증감률	
				전년	평년
공급량(e=a+d)	455	382	380	19.1	19.7
국내 생산량(a)	396	338	339	17.2	16.8
순수입량(d=b-c)	59	44	44	34.1	34.3
수입량(b)	59	44	44	34.1	34.1
수출량(c)	0	0	0	11.2	-19.6
자급률(a/e)	87.1	88.6	88.8		

주 1) 2024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2) 수출입 물량 중 건조대파는 신선대파로 환산(수율 0.07% 적용)한 수치
 3) 자급률은 생산량·공급량으로 나누어 준 값
 4) 평년 공급량은 2019년 1월~2023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통계청, 관세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업관측센터

4.1.4. 가격 동향

- 2024년 대파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0.6%, 평년 대비 31.5% 상승한 2,140원/kg이었다.
- 전년산 겨울대파가 출하되는 1~4월 도매가격은 생육기 잦은 집중호우와 고온 영향으로 단수가 감소하였고, 출하기 강풍과 폭설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하여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61.6%, 99.8% 높은 가격이 지속되었다.
- 그러나 봄대파(경기·전북·경북지역)와 고랭지 대파(강원지역)가 출하되는 5~10월 도매가격은 재배면적이 증가한데다, 장마철 주산지 피해가 적어 전년보다 낮은 가격이 유지되었다.
- 11~12월 가을·겨울대파 도매가격 역시 재배면적이 증가하면서 전년보다 낮은 가격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전남지역 겨울대파로의 작형 전환이 다소 지연되면서 평년보다는 높은 가격이 형성되었다.
- 2024년산 겨울대파가 출하되는 전남지역은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늘었고, 정식 이후 여름철 생육기 집중호우와 고온 피해도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9-45 | 대파 1인당 소비 동향

단위: kg, %

구분	2024년	2023년	평년	증감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소비량	8.8	7.4	7.3	18.8	19.5

주 1) 대파 1인당 소비량은 대파 순 공급량에서 추계인구로 나누어서 산출
 2) 평년 소비량은 2019년 1월~2023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통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 대파 유통채널별 출하 비중은 도매시장이 46~63%, 대형마트 5~7%, 기타 수요처 31~49% 수준으로 추정된다. 대파 생산량이 많았고, 도매가격(1,870원/kg)이 낮았던 2022년과 2023년에는 대형마트의 판매비중이 높았으나, 생산량이 적어 가격이 높았던 2021년과 2024년은 상대적으로 판매비중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9-46 | 대파 유통채널별 출하 비중

단위: 원/kg,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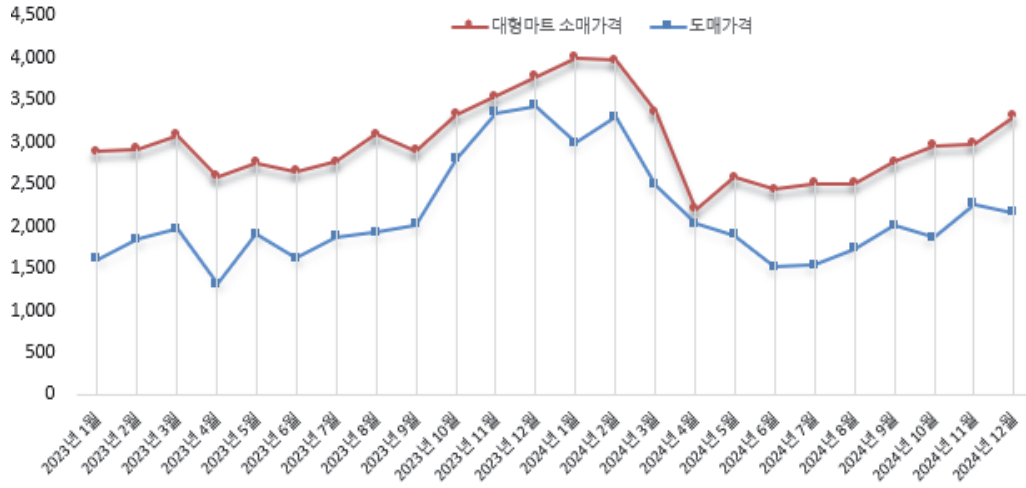
구분	소매평균가격	도매시장	대형마트	기타 수요처
2024	2,955	187,149 (47.2)	20,838 (5.3)	108,496 (47.5)
2023	2,018	208,759 (61.7)	21,132 (6.2)	187,946 (32.1)
2022	2,570	203,941 (62.9)	21,301 (6.6)	98,814 (30.5)
2021	3,380	177,280 (45.8)	21,237 (5.5)	188,667 (48.7)

자료: 통계청, 농넷(<https://www.nongnet.or.kr>), 전국도매시장

- 도매가격의 등락은 대형마트의 소매가격에 시차 없이 반영되고 있으며, 도매가격은 소매가격의 7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겨울대파 작황이 크게 부진하였던 2024년 1~2월의 경우 일시적으로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그림 9-22 | 대파 도매 및 소매가격 추이

단위: 원/kg(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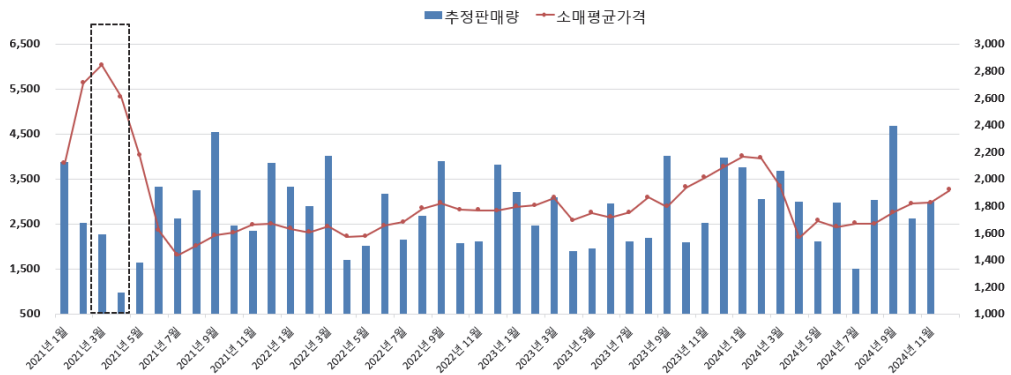


자료: 농넷(<https://www.nongnet.or.kr>),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대형마트의 대파 판매량은 3월과 9월 개학 영향 등으로 증가하나, 이 시기를 제외하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한편 2021년 이후 대파가격은 완만히 상승하고 있다.
- 2021년 1~4월에는 한파와 폭설 피해로 판매량이 줄면서 가격도 크게 상승하였다.

그림 9-23 | 대파 소매가격 및 판매량 동향

단위: 원/kg, 톤



자료: 농넷(<https://www.nongnet.or.kr>)

4.1.6. 중국 산지 동향

- 2024년 중국 대파 재배면적은 한파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상승하여 2023년(3만 2천 ha) 대비 4.8% 증가한 3만 4천 ha로 추정된다.
- 산동성 지역은 12월 상순까지 대부분 출하가 종료되고, 2025년 1~5월에는 남부 복건성 지역에서 출하가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작황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4.2. 2025년 상반기 전망

- 2025년 5월까지 출하되는 2024년산 전남지역 겨울대파 재배면적은 출하기와 정식기 가격이 상승하여 전년 대비 4.8% 증가하였다.
 - 주산지인 신안과 진도 지역은 전년 대비 각각 4.0%, 6.5% 증가하였다. 이는 도매가격이 높았던 시기에 출하가 원활히 진행되면서 농가의 재배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2024년 12월 말 기준, 겨울대파 작황은 11~12월 기온이 높아 전년 대비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진도지역은 작황이 양호하였던 전년보다 부진하나, 평년 수준은 유지될 전망이다. 영광지역은 우박 피해가 있었으나, 후기 출하기인 4~5월경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본격적인 겨울대파 출하시기는 2024년 정식기에 전국적으로 이전 작형인 가을대파 출하시기가 지연되면서 전년과 평년 대비 다소 늦어질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24년 경기·강원지역 등 재배면적이 증가하였고, 전년 대비 온화한 기온으로 가을대파 출하시기도 연장되면서 겨울대파로의 작형 전환은 다소 지연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9-47 | 2024년산 전남지역 겨울대파 전년 및 평년 대비 재배면적 증감률

단위: %

증감률	연산	신안	진도	영광	기타	전체
	전년		4.0	6.5	3.4	5.6
평년		4.3	5.5	-2.8	3.4	3.3

자료: 농업관측센터, 전남도청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결과(2024. 11. 20), 2025년 5~6월경 출하되는 봄대파 재배면적은 2024년 정식기(10~11월)에 가격이 전년과 평년 대비 하락하여 전년보다 2.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지역별로 경기·충청지역 하우스 대파(금년 10월 하순~12월 상순 정식)와 전북·영남지역 노지대파(10월 하순~11월 중순 정식) 모두 감소가 예상된다.
 - 경기지역은 1월 상순경까지 가격에 따라 정식(의향)면적이 변동할 수 있다.

표 9-48 | 2025년 봄대파 재배(의향)면적 2024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경기	충청	전북	영남	전체
1.2	-5.2	-2.8	-4.9	-2.8

자료: 농업관측센터, 2024년 11월 2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2025년 상반기(1~4월) 가격은 재배면적 증가와 정식 이후 작황 양호로 겨울대파 출하량이 증가하여 전년(2,690원/kg)과 평년(1,900원/kg) 동기 대비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4.3. 중장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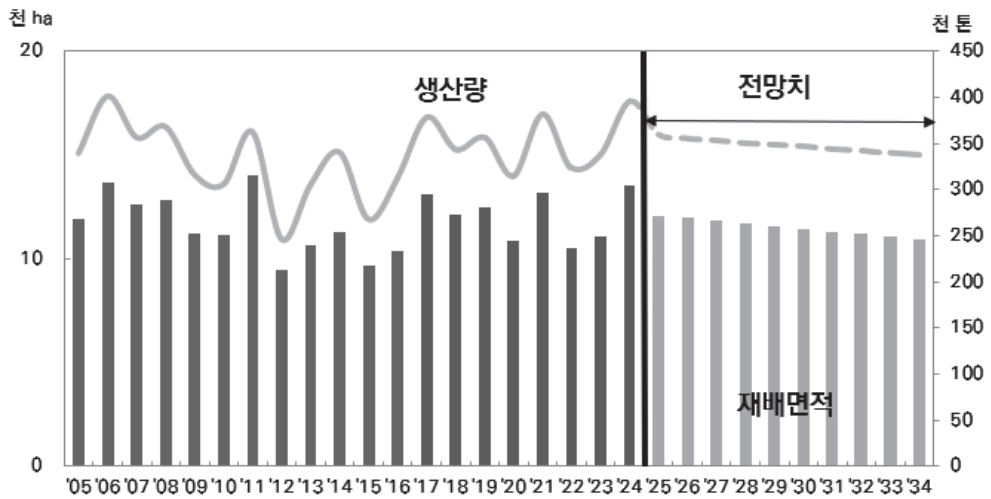
- 대파 재배면적은 2025년 12,219ha에서 2034년 10,960ha 수준으로 연평균 1.1% 감소가 예상된다.
 -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생산비 증가 영향 등으로 재배면적은 중장기적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 대파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감소하면서 2025년 36만 톤에서 2034년에는 34만 톤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대파 수입량은 중국산 수입 대파의 영향을 받겠지만, 2034년까지 연평균 2.4% 감소하면서, 평년 수준인 4만 톤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대파 총 공급량은 생산량 감소로 2025년 40만 톤에서 2034년 38만 톤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내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량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자급률은 9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9-49 | 대파 중장기 수급 전망

구분	단위	2024	전망		
			2025	2029	2034
재배면적	ha	13,517	12,219	11,615	10,960
총 공급량(A=B+C)	천 톤	455	404	391	382
국내 생산량(B)	천 톤	396	360	349	338
순수입량(C=D-E)	천 톤	59	45	42	44
수입량(D)	천 톤	59	45	43	44
수출량(E)	천 톤	0	0	0	0
자급률(B/A)	%	87.1	89.0	89.2	88.5

주: 2024년 생산량과 2025년 이후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추정치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계청, 관세청

그림 9-24 | 대파 생산 동향 및 중장기 전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통계청

부록 1 2000~2024년 양파 수급 동향

I 부표 9-1 | 양파 생산 동향(연산기준: 4월~익년 3월)

단위: ha, kg/10a, 톤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00	16,773	5,176	868,097
2001	18,995	5,613	1,066,224
2002	15,314	6,092	932,978
2003	12,352	6,033	745,203
2004	15,563	6,090	947,797
2005	16,737	6,114	1,023,331
2006	15,315	5,809	889,619
2007	17,751	6,836	1,213,375
2008	15,392	6,725	1,035,076
2009	18,514	7,412	1,372,291
2010	22,113	6,384	1,411,646
2011	22,976	6,616	1,520,016
2012	20,965	5,703	1,195,737
2013	20,036	6,458	1,294,009
2014	23,911	6,649	1,589,957
2015	18,015	6,072	1,093,932
2016	19,896	6,528	1,298,749
2017	19,538	5,858	1,144,493
2018	26,425	5,756	1,520,969
2019	21,777	7,322	1,594,450
2020	17,930	7,474	1,340,134
2021	18,532	7,390	1,369,572
2022	17,521	6,605	1,157,223
2023	17,986	6,759	1,215,674
2024	18,829	6,651	1,252,275

주 1) 2020~2024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치

2) 2022년산 재배면적은 조생종양파 산지폐기면적(194ha)을 포함한 면적 기준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1 부표 9-21 양파 품종별 생산 동향(연산기준: 4월~익년 3월)

단위: ha, kg/10a, 톤

연산	조생종			중만생종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00	1,642	5,577	91,574	15,131	5,132	776,523
2001	3,149	5,287	166,488	15,846	5,678	899,736
2002	2,496	5,488	136,980	12,818	6,210	795,998
2003	2,292	5,983	137,119	10,060	6,045	608,084
2004	2,769	6,242	172,844	12,794	6,057	774,953
2005	2,450	6,625	162,312	14,287	6,027	861,019
2006	2,599	5,363	139,380	12,716	5,900	750,239
2007	3,203	6,411	205,352	14,548	6,929	1,008,023
2008	1,852	6,340	117,417	13,540	6,777	917,659
2009	2,479	6,731	166,868	16,035	7,517	1,205,423
2010	2,561	5,681	145,490	19,552	6,476	1,266,156
2011	2,661	6,556	174,450	20,315	6,624	1,345,566
2012	2,275	5,808	132,135	18,690	5,691	1,063,602
2013	1,447	5,716	82,716	18,589	6,516	1,211,293
2014	1,999	6,821	136,353	21,912	6,634	1,453,604
2015	2,013	6,274	126,297	16,002	6,047	967,636
2016	2,990	6,297	188,278	16,906	6,569	1,110,471
2017	2,796	6,296	176,037	16,742	5,785	968,456
2018	3,577	5,838	208,809	22,849	5,743	1,312,160
2019	2,855	7,590	216,658	18,923	7,281	1,377,792
2020	2,683	7,578	203,318	15,247	7,456	1,136,816
2021	2,939	7,397	217,425	15,593	7,389	1,152,147
2022	2,975	7,261	216,004	14,546	6,471	941,219
2023	2,956	7,137	210,986	15,030	6,685	1,004,688
2024	2,971	6,621	196,717	15,858	6,656	1,055,558

주 1) 2020~2024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치

2) 2022년산 재배면적은 조생종양파 산지폐기면적(194ha)을 포함한 면적 기준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Ⅰ 부표 9-3 | 양파 수출 동향(연산기준: 4월~익년 3월)

단위: 톤

연산	총 수출량				
	신선양파	건조양파	냉동양파	깎양파	초산조제양파
2000	245	243	1	-	-
2001	3,374	3,374	-	-	-
2002	5,810	234	5,556	21	-
2003	296	68	227	-	-
2004	257	11	245	-	1
2005	320	75	246	-	-
2006	416	361	55	-	-
2007	1,238	1,172	66	-	-
2008	105	1	104	-	1
2009	10,131	9,230	888	13	1
2010	3,512	3,502	3	3	4
2011	760	749	-	10	-
2012	1,154	941	185	28	-
2013	799	798	1	0	0
2014	24,337	24,332	3	1	-
2015	224	224	0	-	-
2016	8,916	8,887	0	28	1
2017	582	550	1	28	4
2018	4,444	4,441	0	0	2
2019	50,419	50,280	139	-	-
2020	5,685	5,683	2	-	-
2021	10,899	10,889	1	1	0
2022	3,840	3,801	12	2	25
2023	591	516	10	12	53
2024	246	56	156	11	24

주 1) 수출량은 건조양파, 냉동양파, 깎양파, 초산조제양파는 수율을 적용하여 신선양파로 환산한 수치

2) 2024년산은 4~12월 누적 수출량

자료: 관세청

Ⅰ 부표 9-4 | 양파 수입 동향(연산기준: 4월~익년 3월)

단위: 톤

연산	총 수입량					
	신선양파	건조양파	냉동양파	깎양파	초산조제양파	
2000	25,967	9,793	16,017	157	-	0
2001	4,818	832	3,690	295	-	2
2002	28,691	18,245	15,808	323	-	14
2003	98,726	85,996	11,072	1,653	-	6
2004	57,776	33,840	22,849	1,013	-	75
2005	46,621	11,730	34,489	347	-	54
2006	64,892	55,604	7,853	1,383	-	53
2007	33,659	7,842	24,139	1,556	-	122
2008	65,112	54,847	7,357	2,816	-	92
2009	22,246	2,788	16,618	2,745	-	94
2010	49,134	25,796	19,851	3,383	-	104
2011	20,916	7,369	10,149	3,332	-	67
2012	84,237	62,944	17,461	3,753	-	80
2013	64,996	36,264	21,407	7,274	-	52
2014	24,033	934	17,264	5,819	-	16
2015	214,878	181,593	24,550	8,710	-	25
2016	74,265	41,730	22,602	9,910	-	22
2017	181,400	145,979	24,042	11,365	-	14
2018	74,157	38,599	22,781	12,768	-	10
2019	58,650	18,894	28,077	11,661	-	18
2020	99,120	53,226	31,787	14,097	-	10
2021	63,596	9,494	37,382	16,359	356	6
2022	142,243	102,480	20,608	16,841	2,300	15
2023	145,662	101,293	21,039	16,817	6,501	11
2024	105,637	64,113	20,688	13,500	7,330	7

주 1) 수입량은 건조양파, 냉동양파, 깎양파, 초산조제양파는 수율을 적용하여 신선양파로 환산한 수치

2) 2024년산은 4~12월 누적 수출량

자료: 관세청

제 5 장

제 7 장

제 8 장

제 9 장

제 10 장

| 부표 9-5 | 양파 공급 동향(연산기준: 4월~익년 3월)

단위: 천 톤, %

구분	공급량 (f=a+b+c-d-e)	공급량					자급률 (b/f)
		이월재고량(a)	생산량(b)	수입량(c)	수출량(d)	기말재고량(e)	
2000	883	-	868	26	0	11	98.3
2001	1,079	11	1,066	5	3	-	98.8
2002	956	-	933	29	6	-	97.6
2003	844	-	745	99	0	-	88.3
2004	1,005	-	948	58	0	-	94.3
2005	1,049	-	1,023	47	0	21	97.6
2006	975	21	890	65	0	-	91.2
2007	1,246	-	1,213	34	1	-	97.4
2008	1,100	-	1,035	65	0	-	94.1
2009	1,384	-	1,372	22	10	-	99.1
2010	1,454	-	1,412	49	4	3	97.1
2011	1,543	3	1,520	21	1	-	98.5
2012	1,278	-	1,196	84	1	1	93.6
2013	1,358	-	1,294	65	1	-	95.3
2014	1,546	-	1,590	24	24	44	102.9
2015	1,353	44	1,094	215	0	-	80.9
2016	1,364	-	1,299	74	9	-	95.2
2017	1,325	-	1,144	181	1	-	86.4
2018	1,590	-	1,521	74	4	-	95.6
2019	1,600	-	1,594	59	50	3	99.7
2020	1,424	3	1,340	99	6	13	94.1
2021	1,436	13	1,370	64	11	-	95.4
2022	1,296	-	1,157	142	4	-	89.3
2023	1,361	-	1,216	146	1	-	89.3
2024(p)	1,382	-	1,252	130	0	-	90.6

주 1) 공급량은 이월재고·생산·수입량 합에 수출·기말재고량을 제외한 수치

2) 자급률은 생산량을 공급량으로 나누어 추정하였으며, 이월재고량 및 기말재고량은 정부 비축물량 기준

3) 수출입량에는 신선양파, 건조양파, 냉동양파, 깎양파, 초산조제양파가 포함되며, 건조, 냉동, 초산조제의 경우 수율을 적용하여 신선양파로 환산

4) 2024년산 수출입량에서 2025년 1~3월 물량은 평년 수준으로 가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Ⅰ 부표 9-6Ⅰ 양파 도매가격 동향(연산기준: 4월~익년 3월)

단위: 원/kg

연산	상품	중품
2000	533	409
2001	326	245
2002	669	530
2003	864	731
2004	626	503
2005	597	479
2006	878	752
2007	447	385
2008	945	850
2009	712	625
2010	1,026	866
2011	654	519
2012	1,206	1,043
2013	1,022	915
2014	560	447
2015	1,313	1,166
2016	1,001	881
2017	1,087	937
2018	711	496
2019	697	610
2020	1,214	1,070
2021	726	647
2022	1,307	1,113
2023	1,250	1,028
2024	1,203	977

주: 2024년산은 4~12월 평균 명목가격 기준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제 5 장

제 7 장

제 8 장

제 9 장

제 10 장

I 부표 9-7 | 중국 양파 생산 동향

단위: 천 ha, kg/10a, 천 톤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00	683	2,127	14,514
2001	739	2,090	15,452
2002	790	2,163	17,092
2003	820	2,216	18,180
2004	871	2,152	18,750
2005	922	2,143	19,759
2006	974	2,094	20,392
2007	1,026	2,084	21,378
2008	957	2,264	21,659
2009	976	2,248	21,935
2010	1,006	2,252	22,649
2011	1,041	2,208	22,988
2012	1,047	2,212	23,167
2013	1,053	2,213	23,289
2014	1,061	2,220	23,545
2015	1,098	2,227	24,449
2016	1,111	2,227	24,753
2017	1,121	2,231	25,009
2018	1,126	2,235	25,166
2019	1,128	2,237	25,233
2020	1,153	2,241	25,828
2021	1,166	2,241	26,138
2022	1,148	2,239	25,707
2023	1,156	2,240	25,885

자료: FAO(2024.12.20.)

부록 2 2000~2024년 마늘 수급 동향

1 부표 9-81 마늘 생산 동향(연산기준: 6월~익년 5월)

단위: ha, kg/10a, 톤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00	44,941	1,056	474,388
2001	37,118	1,095	406,385
2002	33,153	1,190	394,482
2003	33,140	1,143	378,846
2004	30,237	1,183	357,824
2005	31,766	1,180	374,980
2006	28,594	1,159	331,379
2007	26,986	1,288	347,546
2008	28,416	1,321	375,464
2009	26,323	1,357	357,278
2010	22,414	1,212	271,561
2011	24,035	1,227	295,002
2012	28,278	1,199	339,113
2013	29,352	1,405	412,250
2014	25,062	1,412	353,761
2015	20,638	1,290	266,272
2016	20,759	1,327	275,549
2017	24,864	1,221	303,579
2018	28,351	1,170	331,741
2019	27,689	1,400	387,671
2020	25,372	1,432	363,432
2021	23,528	1,330	312,995
2022	23,686	1,228	290,824
2023	24,629	1,269	312,438
2024	23,592	1,206	284,514

주: 2021~2024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치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I 부표 9-9 | 마늘 품종별 생산 동향(연산기준: 6월~익년 5월)

단위: ha, kg/10a, 톤

연산	한지형			난지형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00	9,909			35,032		
2001	8,385			28,733		
2002	6,847			26,306		
2003	6,190			26,950		
2004	6,060			24,177		
2005	6,334			25,432		
2006	5,961			22,633		
2007	5,669			21,317		
2008	5,438			22,978		
2009	5,384			20,939		
2010	4,808	838	40,281	17,606	1,314	231,280
2011	5,537	790	43,745	18,498	1,358	251,257
2012	6,289	825	51,904	21,989	1,306	287,209
2013	6,185	981	60,676	23,167	1,518	351,574
2014	5,282	936	49,415	19,780	1,539	304,346
2015	4,759	896	42,637	15,879	1,408	223,635
2016	4,261	915	38,990	16,498	1,434	236,559
2017	5,304	823	43,667	19,560	1,329	259,912
2018	5,379	812	43,656	22,972	1,254	288,085
2019	5,084	867	44,055	22,605	1,520	343,615
2020	5,199	994	51,698	20,173	1,545	311,734
2021	4,757	908	43,187	18,771	1,437	269,808
2022	4,628	858	39,731	19,058	1,318	251,092
2023	4,581	868	39,764	20,048	1,360	272,674
2024	4,292	841	36,093	19,300	1,287	248,421

주: 2021~2024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치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1 부표 9-10 | 마늘 수출 동향(연산기준: 6월~익년 5월)

단위: 톤

연산	총 수출량					
	간마늘	통마늘	냉동마늘	건조마늘	초산조제마늘	
2000	7,097		6,793	9	295	
2001	21,279	205	5,401	272	15,355	47
2002	187	14	80	4	34	55
2003	919	58	760	30	5	66
2004	359	36	224	1	16	82
2005	302	60	33	2	124	84
2006	478	2	407		4	65
2007	171	115	9	1	7	39
2008	226	61	74	5	75	12
2009	285	53	19	1	200	13
2010	205	17	38	40	75	35
2011	602	10	504	3	57	28
2012	836	4	781	3	12	36
2013	93	14	2	18	14	46
2014	138	57	5	17	18	41
2015	289	5	143	53	55	34
2016	105	19	8	27	21	30
2017	152	16	74	12	27	23
2018	127	10	45	10	41	21
2019	4,229	2,640	1,411	106	55	17
2020	1,905	1,682	106	46	51	20
2021	201	76	10	13	80	21
2022	208	74	6	20	90	18
2023	803	664	1	6	109	23
2024	70	9	1	6	46	8

주 1) 수출량은 간마늘, 냉동마늘, 건조마늘, 초산조제마늘에 수율을 적용하여 통마늘로 환산한 수치

2) 2024년산 수출량은 6~12월 누적 수출량

자료: 관세청

제 5 장

제 7 장

제 8 장

제 9 장

제 10 장

I 부표 9-11 | 마늘 수입 동향(연산기준: 6월~익년 5월)

단위: 톤

연산	총 수입량					
	간마늘	통마늘	냉동마늘	건조마늘	초산조제마늘	
2000	26,184	12	64	7,682	13,645	4,781
2001	26,395	0	12,618	10,515	179	3,082
2002	34,659	385	13,283	14,778	369	5,843
2003	53,805	4,086	14,483	24,587	2,831	7,817
2004	61,316	8,578	13,641	31,520	1,170	6,407
2005	42,969	1,751	9,625	23,027	3,781	4,786
2006	55,687	768	13,418	32,836	2,663	6,001
2007	70,747	3,193	10,007	44,913	3,096	9,538
2008	51,226	1,755	3,418	31,234	8,430	6,390
2009	37,256	31	5,964	25,025	95	6,141
2010	90,205	2,135	36,003	47,227	904	3,936
2011	92,031	2,020	32,330	50,951	2,505	4,224
2012	50,456	1,095	10,056	30,313	4,381	4,611
2013	53,753	1,360	1,005	42,129	4,178	5,082
2014	51,096	1,948	4,493	36,293	3,482	4,880
2015	76,926	2,619	30,355	38,892	811	4,249
2016	69,856	1,248	26,031	38,955	56	3,567
2017	51,109	594	3,781	42,658	228	3,848
2018	55,957	556	6,680	44,406	574	3,741
2019	40,297	235	791	35,230	293	3,747
2020	49,624	344	5,053	39,982	73	4,173
2021	53,902	2,115	8,018	39,424	615	3,729
2022	78,228	803	18,193	55,600	243	3,389
2023	39,805	424	284	36,587	308	2,202
2024	34,105	300	38	30,609	110	3,047

주 1) 수입량은 간마늘, 냉동마늘, 건조마늘, 초산조제마늘에 수율을 적용하여 통마늘로 환산한 수치

2) 2024년산 수입량은 6~12월 누적 수입량

자료: 관세청

1 부표 9-12 | 마늘 공급 동향(연산기준: 6월~익년 5월)

단위: 천 톤, %

연산	공급량 (f=a+b+c-d-e)					자급률 (b/f)	
	이월재고량 (a)	생산량 (b)	수입량 (c)	수출량 (d)	기말재고량 (e)		
2000	481	3	474	26	7	15	98.5
2001	421	15	406	26	21	6	96.6
2002	421	6	394	35	0	14	93.7
2003	440	14	379	54	1	6	86.2
2004	424	6	358	61	0	1	84.4
2005	418	1	375	43	0	1	89.8
2006	387	1	331	56	0	1	85.7
2007	413	1	348	71	0	6	84.1
2008	432	6	375	51	0	0	86.8
2009	394	0	357	37	0	0	90.6
2010	362	0	272	90	0	0	75.1
2011	386	0	295	92	1	0	76.3
2012	389	0	339	50	1	0	87.2
2013	451	0	412	54	0	15	91.4
2014	415	15	354	51	0	5	85.3
2015	345	5	266	77	0	3	77.2
2016	338	3	276	70	0	10	81.5
2017	356	10	304	51	0	9	85.4
2018	392	9	332	56	0	5	84.7
2019	425	5	388	40	4	4	91.3
2020	411	4	363	50	2	4	88.4
2021	371	4	313	54	0	0	84.4
2022	367	0	291	78	0	2	79.3
2023	351	2	312	40	1	2	88.9
2024(p)	337	2	285	52	0	1	84.3

주 1) 공급량은 이월재고량·생산량·수입량 합에 수출량·기말재고량을 제외한 수치
 2) 자급률은 생산량을 공급량으로 나누어 추정
 3) 수출입량은 깬마늘, 냉동마늘, 건조마늘, 초산조제마늘에 수율을 적용하여 통마늘로 환산한 수치
 4) 2021~2024년산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실추치이며, 2023~2024년산 기말재고는 정부비축물량 포함하여 최근 3개년 평균으로 가정
 5) 2024년산 수출량과 수입량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추정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제 5 장
제 7 장
제 8 장
제 9 장
제 10 장

I 부표 9-13 | 마늘 도매가격 동향(명목가격, 연산기준: 6월~익년 5월)

단위: 원/kg

연산	난지형 마늘 (상품 기준)	간마늘(상품 기준)		
			대서종	남도종
2000	1,661	.	.	.
2001	1,845	.	.	.
2002	1,959	.	.	.
2003	2,456	4,546	.	.
2004	2,244	3,530	.	.
2005	2,041	3,405	.	.
2006	2,290	3,727	.	.
2007	2,104	3,542	.	.
2008	1,779	3,153	.	.
2009	2,483	4,049	.	.
2010	5,454	7,142	.	.
2011	3,861	5,897	.	.
2012	3,937	5,969	.	.
2013	2,746	4,140	.	.
2014	3,362	4,750	.	.
2015	5,346	7,194	.	.
2016	6,169	7,246	.	.
2017	5,855	6,556	.	.
2018	5,286	5,835	5,714	6,441
2019	3,469	4,112	4,080	4,272
2020	4,488	6,686	6,698	6,615
2021	6,746	8,103	8,075	8,256
2022	6,981	8,174	8,119	8,476
2023	4,403	6,701	6,657	6,962
2024	4,833	6,960	6,877	7,387

주: 2024년산은 6~12월 평균 가격이며, 전국 5대 도매시장(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평균 가격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부표 9-14 | 중국 마늘 생산 동향

단위: 천 ha, kg/10a, 천 톤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00	560	1,337	7,486
2001	585	1,350	7,894
2002	627	1,447	9,080
2003	632	1,594	10,078
2004	638	1,661	10,593
2005	648	1,710	11,083
2006	657	1,762	11,568
2007	757	2,123	16,065
2008	822	2,233	18,357
2009	779	2,306	17,968
2010	804	2,307	18,549
2011	794	2,330	18,508
2012	800	2,310	18,492
2013	783	2,457	19,227
2014	791	2,533	20,047
2015	842	2,585	21,766
2016	805	2,525	20,326
2017	801	2,507	20,096
2018	825	2,506	20,675
2019	836	2,520	21,066
2020	830	2,483	20,613
2021	834	2,494	20,788
2022	838	2,486	20,829
2023	840	2,469	20,743

자료: FAO(2024.12.20.)

부록 3 2000~2024년 건고추 수급 동향

I 부표 9-15 | 건고추 생산 동향(연산기준: 8월~익년 7월)

단위: ha, kg/10a, 톤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00	74,471	260	193,786
2001	70,736	255	180,120
2002	72,104	267	192,753
2003	57,502	230	132,010
2004	61,894	250	154,962
2005	61,299	263	161,380
2006	53,097	220	116,914
2007	54,876	292	160,398
2008	48,825	253	123,509
2009	44,817	262	117,324
2010	44,584	214	95,391
2011	42,574	181	77,110
2012	45,459	229	104,146
2013	45,360	260	117,816
2014	36,120	236	85,068
2015	34,514	283	97,697
2016	32,181	266	85,459
2017	28,337	197	55,714
2018	28,824	248	71,509
2019	31,644	248	78,437
2020	31,146	193	60,076
2021	33,373	239	79,887
2022	29,770	211	62,916
2023	27,132	221	60,018
2024	26,436	232	61,272

주: 2021~2024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1 부표 9-16 | 건고추 수출 동향(연산기준: 8월~익년 7월)

단위: 톤

연산	총 수출량						
	건고추류	냉동고추	혼합조미료	기타소스	고추장	김치	
2000	6,958	3,127	0	1,326	886	497	1,123
2001	5,309	1,734	0	1,231	655	466	1,224
2002	6,530	2,063	3	1,783	698	489	1,494
2003	7,418	2,340	4	1,841	980	641	1,612
2004	7,893	2,342	1	1,719	1,419	747	1,664
2005	8,500	2,540	0	1,891	2,153	690	1,225
2006	9,788	2,724	3	1,895	3,234	693	1,239
2007	9,521	3,208	0	1,215	3,324	544	1,231
2008	10,077	3,158	0	1,964	2,876	760	1,320
2009	12,383	3,195	0	2,349	4,480	952	1,406
2010	14,395	3,273	2	3,156	5,561	1,096	1,307
2011	16,014	3,626	1	3,536	6,364	1,174	1,312
2012	18,203	3,972	1	4,064	7,660	1,248	1,258
2013	19,696	3,639	0	3,499	9,929	1,449	1,181
2014	21,899	3,887	0	3,113	12,339	1,456	1,103
2015	24,407	4,211	0	2,971	14,425	1,701	1,099
2016	27,627	3,911	0	3,389	17,415	1,801	1,111
2017	29,316	3,858	0	3,666	18,586	1,972	1,234
2018	33,421	4,821	1	4,175	20,859	2,173	1,392
2019	41,593	5,188	13	4,523	27,685	2,487	1,697
2020	51,973	5,354	1	4,509	37,366	2,783	1,959
2021	53,401	6,247	0	5,239	36,926	2,999	1,990
2022	49,648	5,325	0	5,124	34,237	2,976	1,985
2023	53,180	5,228	1	5,054	37,774	2,993	2,130
2024	23,571	2,760	1	2,280	16,272	1,355	903

- 주 1) 수출량은 기타소스, 혼합조미료, 냉동고추, 고추장, 김치에 포함되어있는 고춧가루를 수출 적용을 통해 건고추로 환산한 중량과 건고추류 수출량을 합한 수치이며, 휴대용 반출량은 미포함
- 2) 고춧가루도 건고추로 환산하여 건고추류 수출량에 포함
- 3) 2024년산은 8~12월 누적 수출량

자료: 관세청

제 5 장

제 7 장

제 8 장

제 9 장

제 10 장

| 부표 9-17 | 건고추 수입 동향(연산기준: 8월~익년 7월)

단위: 톤

연산	총 수입량						
	건고추류	냉동고추	혼합조미료	기타소스	고추장	김치	
2000	29,915	8,131	1,032	5,826	14,880	16	30
2001	40,837	10,835	2,534	7,156	20,299	8	4
2002	36,326	6,928	2,160	5,218	21,465	7	548
2003	65,093	17,089	12,355	5,058	28,404	34	2,154
2004	76,015	13,664	18,968	5,243	33,159	101	4,879
2005	67,738	10,809	16,132	4,913	29,010	65	6,809
2006	82,664	9,550	25,755	5,105	33,225	88	8,940
2007	87,619	9,909	22,480	5,351	37,783	138	11,959
2008	86,328	9,458	30,307	5,196	33,361	84	7,922
2009	81,151	7,650	25,919	4,972	35,085	68	7,457
2010	101,463	11,735	34,139	5,226	39,466	73	10,823
2011	120,251	20,445	41,323	5,149	42,939	67	10,328
2012	96,753	5,235	37,777	4,127	39,106	42	10,466
2013	96,407	6,543	32,359	4,256	43,199	35	10,015
2014	105,707	8,009	37,369	4,406	45,587	27	10,310
2015	105,636	6,093	37,595	5,150	45,786	23	10,990
2016	110,179	4,087	42,418	4,043	46,840	18	12,774
2017	122,423	4,135	49,134	2,638	53,138	14	13,365
2018	124,510	5,095	47,179	1,861	56,269	18	14,087
2019	123,343	5,730	48,599	2,316	53,140	21	13,538
2020	133,458	7,315	51,924	2,849	58,746	21	12,602
2021	130,811	8,667	43,179	3,058	64,575	24	11,309
2022	135,259	7,468	42,802	3,001	68,566	14	13,407
2023	139,114	10,207	37,943	3,291	73,729	13	13,931
2024	57,871	4,186	15,512	1,672	30,000	3	6,497

주 1) 수입량은 기타소스, 혼합조미료, 냉동고추, 고추장, 김치에 포함되어 있는 고춧가루를 수출 적용을 통해 건고추로 환산한 중량과 건고추류 수입량을 합한 수치이며, 휴대용 반입량은 미포함

2) 고춧가루도 건고추로 환산하여 건고추류 수입량에 포함

3) 2024년산은 8~12월 누적 수입량

자료: 관세청

Ⅰ 부표 9-18 | 견고추 공급 동향(연산기준: 8월~익년 7월)

단위: 천 톤, %

연산	공급량 (f=a+b+c-d-e)					자급률 (b/f)	
	이월재고량 (a)	생산량 (b)	수입량 (c)	수출량 (d)	기말재고량 (e)		
2000	219	3	194	30	7	1	88.6
2001	207	1	180	41	5	10	87.2
2002	215	10	193	36	7	18	89.8
2003	207	18	132	65	7	1	63.9
2004	220	1	155	76	8	4	70.4
2005	222	4	161	68	8	3	72.8
2006	190	3	117	83	10	3	61.6
2007	240	3	160	88	10	1	66.7
2008	201	1	124	86	10		61.5
2009	185		117	81	12	1	63.4
2010	179	1	95	101	14	4	53.2
2011	184	4	77	120	16	1	41.8
2012	182	1	104	97	18	2	57.3
2013	187	2	118	96	20	10	63.2
2014	171	10	85	106	22	8	49.8
2015	173	8	98	106	24	14	56.5
2016	171	14	85	110	28	11	50.0
2017	154	11	56	122	29	6	36.2
2018	164	6	72	125	33	5	43.7
2019	160	5	78	123	42	6	49.1
2020	145	6	60	133	52	2	41.5
2021	151	2	80	131	53	9	53.0
2022	151	9	63	135	50	7	41.8
2023	143	7	60	139	53	9	41.9
2024(p)	150	9	61	143	57	7	40.9

주 1) 공급량은 이월재고·생산·수입량 합에 수출·기말재고량을 제외한 수치

2) 자급률은 생산량을 공급량으로 나누어 추정

3) 2024년산 수출량과 수입량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추정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 부표 9-19 | 건고추 화건 도매가격 동향(연산기준: 8월~익년 7월)

단위: 원/600g

연 산	상품	중품
2000	4,637	4,332
2001	4,406	4,088
2002	3,737	3,404
2003	6,084	5,691
2004	5,225	4,863
2005	4,448	4,142
2006	6,079	5,629
2007	4,652	4,206
2008	5,768	5,313
2009	5,723	5,272
2010	8,306	7,747
2011	13,835	12,807
2012	9,732	8,732
2013	6,714	5,815
2014	8,369	7,469
2015	7,750	6,896
2016	5,898	5,018
2017	11,952	11,053
2018	12,285	10,946
2019	8,597	7,651
2020	15,966	14,750
2021	11,259	10,104
2022	12,712	11,423
2023	13,656	12,500
2024	13,320	11,934

주 1) 전국 5대 도매시장(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평균 가격

2) 2024년은 8~12월 평균 가격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Ⅰ 부표 9-20 Ⅰ 중국 견고추 생산 동향

단위: 천 ha, kg/10a, 천 톤

연 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00	35	606	212
2001	35	613	215
2002	36	620	220
2003	36	639	230
2004	37	641	235
2005	37	658	240
2006	38	645	245
2007	40	625	250
2008	41	615	252
2009	42	619	260
2010	43	616	265
2011	43	644	277
2012	43	674	290
2013	44	682	300
2014	45	683	307
2015	46	668	306
2016	46	670	309
2017	47	672	315
2018	48	674	321
2019	48	675	326
2020	46	668	308
2021	47	662	312
2022	49	663	327
2023	49	663	326

자료: FAO(2024.12.20.)

제 5 장

제 7 장

제 8 장

제 9 장

제 10 장

부록 4 2000~2024년 대파 수급 동향

[부표 9-21] 대파 생산 동향

단위: ha, kg/10a, 톤

연도	재배면적	단 수	생산량
2001	13,519	2,873	388,406
2002	13,331	2,842	378,849
2003	13,315	2,905	386,798
2004	16,346	2,992	489,136
2005	11,916	2,847	339,289
2006	13,707	2,926	401,029
2007	12,591	2,830	356,286
2008	12,821	2,870	367,936
2009	11,227	2,811	315,638
2010	11,161	2,735	305,289
2011	14,023	2,585	362,431
2012	9,466	2,596	245,757
2013	10,635	2,866	304,817
2014	11,286	3,015	340,229
2015	9,655	2,769	267,343
2016	10,396	3,001	312,009
2017	13,122	2,887	378,827
2018	12,115	2,838	343,869
2019	12,486	2,850	355,931
2020	10,883	2,901	314,685
2021	13,174	2,939	387,184
2022	10,550	3,072	324,096
2023	11,116	3,041	338,093
2024	13,517	2,931	396,227

주: 2024년 단수는 농업관측센터 추정 단수를 적용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부표 9-22] 대파 수출 동향

단위: 톤

연도	총 수출량		
	신선대파	건조대파	냉동대파
2000	327	3	303
2001	353	3	182
2002	231	17	106
2003	115	5	-
2004	592	184	143
2005	204	94	49
2006	123	1	97
2007	26	1	14
2008	891	0	34
2009	127	6	-
2010	723	19	512
2011	181	1	161
2012	353	8	345
2013	15	0	14
2014	16	7	7
2015	22	22	-
2016	3	2	-
2017	108	2	106
2018	15	1	14
2019	65	1	64
2020	11	9	1
2021	217	15	202
2022	25	18	6
2023	28	17	5
2024	32	12	3

주: 신선대파 HS코드는 0703-99-9000(양파·쪽파·마늘·리크 외 기타 파속의 신선 또는 냉장채소), 0703-99-2000(선대파·쪽파), 건조대파 HS코드는 0712-99-2030(파), 냉동대파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통계와 2022년은 신설된 HS코드 0719-89-9010(냉동채소기타)를 사용함. 총수출량은 건조대파에 수출을 적용하여 신선대파로 환산한 물량

자료: 관세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부표 9-23] 대파 수입 동향

단위: 톤

연도	총 수입량			
	신선대파	건조대파	냉동대파	
2000	39,439	529	37,514	1,395
2001	48,754	363	44,952	3,439
2002	43,634	131	38,684	4,818
2003	47,303	3,293	41,112	2,898
2004	50,566	1,098	46,026	3,441
2005	45,266	101	41,126	4,040
2006	50,379	9,280	35,573	5,526
2007	49,073	2,395	40,427	6,251
2008	33,591	2,032	25,260	6,300
2009	30,222	28	23,743	6,450
2010	38,339	3,074	25,863	9,402
2011	51,384	16,943	26,406	8,035
2012	35,374	4,610	22,124	8,640
2013	42,995	8,374	25,402	9,219
2014	30,616	1,226	20,102	9,289
2015	33,250	3,700	19,442	10,109
2016	33,491	3,939	18,559	10,993
2017	38,776	8,383	17,434	12,958
2018	43,985	7,354	22,191	14,441
2019	32,499	5,632	13,614	13,253
2020	42,509	5,532	21,759	15,218
2021	44,811	8,272	20,686	15,854
2022	39,404	2,586	20,782	16,036
2023	43,671	8,469	19,000	16,202
2024	58,568	24,219	17,658	16,691

주: 신선대파 HS코드는 0703-99-9000(양파·쪽파·마늘·리크 외 기타 파속의 신선 또는 냉장채소), 0703-99-2000(선대파·쪽파), 건조대파 HS코드는 0712-99-2030(파), 냉동대파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통계와 2022년은 신설된 HS코드 0719-89-9010(냉동채소기타)를 사용함. 총수입량은 건조대파에 수출을 적용하여 신선대파로 환산한 물량

자료: 관세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부표 9-24] 대파 공급 동향

단위: 톤, %

연도	총 공급량 (e=a+d)	국내 생산량 (a)	순수입량 (d=b-c)	수입량	수출량	자급률 (a/e)
				(b)	(c)	
2001	436,808	388,406	48,402	48,754	353	88.8
2002	422,252	378,849	43,403	43,634	231	89.7
2003	433,986	386,798	47,188	47,303	115	89.1
2004	539,110	489,136	49,974	50,566	592	90.6
2005	384,351	339,289	45,062	45,266	204	88.2
2006	451,284	401,029	50,255	50,379	123	88.8
2007	405,333	356,286	49,047	49,073	26	87.9
2008	400,637	367,936	32,701	33,591	891	91.6
2009	345,733	315,638	30,095	30,222	127	91.3
2010	342,906	305,289	37,617	38,339	723	88.8
2011	413,634	362,431	51,203	51,384	181	87.6
2012	280,778	245,757	35,021	35,374	353	87.4
2013	347,798	304,817	42,981	42,995	15	87.6
2014	370,829	340,229	30,600	30,616	16	91.7
2015	300,571	267,343	33,228	33,250	22	88.9
2016	345,497	312,009	33,488	33,491	3	90.3
2017	417,494	378,827	38,667	38,776	108	90.7
2018	387,840	343,869	43,971	43,985	15	88.7
2019	388,413	355,931	32,482	32,547	65	91.6
2020	357,183	314,685	42,498	42,509	11	88.1
2021	431,778	387,184	44,594	44,811	217	89.7
2022	369,121	324,056	45,065	45,090	25	87.8
2023	381,736	338,093	43,642	43,671	29	88.6
2024	454,763	396,227	58,536	58,568	32	87.1

주 1) 2024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2) 수출입 물량중 건조대파는 신선대파로 환산(수율 0.07% 적용)한 수치
 3) 자급률은 생산량을 공급량으로 나누어 준 값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통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부표 9-25] 대파 도매 가격 동향

단위: 원/kg

연도	상품	중품
2001	779	619
2002	852	654
2003	1,438	1,194
2004	930	769
2005	1,002	852
2006	1,225	1,059
2007	1,040	883
2008	954	811
2009	1,111	951
2010	2,010	1,732
2011	1,293	1,091
2012	1,733	1,469
2013	1,479	1,275
2014	975	814
2015	1,685	1,436
2016	1,972	1,653
2017	1,700	1,394
2018	1,676	1,360
2019	1,365	1,097
2020	1,731	1,442
2021	2,367	2,076
2022	1,603	1,355
2023	2,132	1,779
2024	2,144	1,852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부표 9-26] 중국 대파 생산 동향

단위: 천 ha, 천 톤

연도	재배면적	종류		생산량	종류	
		리크 (Leeks)	골파 (Onions, shallots, green)		리크 (Leeks)	골파 (Onions, shallots, green)
2001	22	4	19	515	85	430
2002	23	4	19	643	96	548
2003	24	4	20	749	105	644
2004	24	4	21	816	112	704
2005	25	4	21	812	107	704
2006	27	5	23	918	125	794
2007	29	5	24	936	126	810
2008	30	5	25	963	127	836
2009	32	5	27	1,023	135	888
2010	31	5	26	1,042	141	901
2011	31	5	26	1,072	149	924
2012	31	5	26	1,074	152	922
2013	32	5	26	1,091	153	938
2014	32	6	27	1,108	156	951
2015	34	6	28	1,166	158	1,008
2016	33	5	27	1,105	140	965
2017	33	6	27	1,121	142	979
2018	34	6	28	1,134	143	991
2019	33	6	27	1,133	147	986
2020	32	6	27	1,118	143	975
2021	33	6	27	1,122	142	980
2022	33	6	27	1,110	143	967
2023	34	6	27	1,109	142	967

자료: FAO(2024.12.20.)